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1
박현숙 외

갈래 익히기

시

006~007쪽

- 1 (1) O (2) O (3) X 2 (1) 운율 (2) 반복 (3) 말하는 이
3 ① 4 (1) ㊸ (2) ㊸ (3) ㊸ (4) ㊸ 5 상징
6 ③

1 (1) 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의미적 요소인 '주제', 음악적 요소인 '운율', 회화적 요소인 '심상'이다.

(2) 운율을 형성할 때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음절 수나 음보의 반복,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동일 시행이나 연의 반복 등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3)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른 인물이나 사물일 수 있다.

2 (1)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하며, 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시에서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절 수와 음보의 반복으로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3) 시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말하는 이라고 한다.

3 시는 행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인의 정서나 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며 시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느껴져 시의 음악성을 드러낸다.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4 (1) 청각적 심상인 '휘파람 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푸른'으로 표현했으므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차가운 감각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촉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3) '쓰디쓰다'는 몹시 쓴 맛이다. 이는 혀로 느끼는 것으로 미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4) 들장미의 열매가 붉은 것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5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은 상징이다.

6 <보기>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였으며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은유가 사용된 것은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비유한 ③이다.

오답 풀이 ①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물'을 '옥'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②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꽃'을 '누님'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④ '듯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나그네가 가는 모습을 구름에 달이 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⑤ 사람이 아닌 '시계'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이 사용되었다.

소설

008~009쪽

- 1 (1) X (2) X (3) O 2 (1) 문제 (2) 절정 (3) 모방성
3 ① 4 ② 5 내적 갈등 6 간접적 제시

1 (1) 소설 구성의 3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해당되며 '주제, 구성, 문제'는 소설의 3요소이다.

(2)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쓴 이야기로 허구적 이야기이다.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은 수필이다.

(3) 소설 구성의 요소에서 인물이 활동하는 시간과 공간은 배경이다.

2 (1) 작가 고유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장 표현 방식을 문체라고 한다.

(2)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3) 소설의 특성 중 '모방성'은 소설이 허구의 문학이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한다는 것이다.

3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극 문학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② 소설은 허구적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하는 모방성을 띤다.

③, ④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성이 있다.

⑤ 소설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4 <보기>에서 임금님은 우투리의 부모님에게 우투리의 소재를 물으며 다그치고 있고, 우투리의 부모님은 말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따라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우투리 설화

아기 장수인 우투리가 콩과 팥 등의 곡식을 가지고 바위 속에 들어가 새 나라를 세우려고 수련하였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로, 이성계로 대표되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담고 있는 조선 시대의 설화이다.

5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들어서 생기는 갈등은 내적 갈등이다.

6 <보기>에서는 수필의 행동을 통해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수필

010쪽

- 1 (1) O (2) X (3) O 2 (1) 중수필 (2) 소설
(3) 자기 고백적 3 ④

1 (1) 수필은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특성이 있다.
(2)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 쓰는 글로, 수필 안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3)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 담긴 글로 글쓴이의 관심사나 가치관, 문체 등의 개성이 드러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상할 수 있다.

2 (1) 중수필은 사회적·시사적 문제를 다루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수필과 소설은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며, 줄거로 된 산문 문학이며,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수필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 고백적 특징이 있다.

3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설화

011쪽

- 1 ② 2 전설 3 (1) X (2) O (3) X

1 설화는 문학 작품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구전되는) 구비 문학이다. 설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내용이 고쳐지거나 더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작가가 창작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설화의 특성 중 '비현실성'에 해당한다.
③ 설화의 특성 중 '서사성'에 해당한다.
④ 설화의 특성 중 '구전성'에 해당한다.
⑤ 설화의 특성 중 '민중성'에 해당한다.

2 설화의 유형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며 비범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설'이다.

3 (1) 흥미와 교훈을 위주로 전해 오는 이야기는 민담이다.

(2) 우주나 국가 등이 포괄적 증거물로 제시되는 것은 신화의 특징이다. 한편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인 바위, 나무 등이 제시되며, 민담은 증거물이 없다.

(3) 민담의 주인공은 평범한 인간이다. 한편, 신화의 주인공은 신 또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신성한 업적을 이루고 신격화된다.

설명하는 글

012쪽

- 1 (1) 이해 (2) 정보나 지식 (3) 처음 (4) 명료성 2 ③
3 ②

1 (1)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쓴 글이다.
(3)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는 글을 쓴 동기, 목적, 방향 등이 제시된다.
(4) 설명하는 글은 전달하려는 바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명료성이라고 한다.

2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이다.

3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객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명하는 글은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료성을 띤다.
④ 설명하는 글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
⑤ 설명하는 글은 일정한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성을 띤다.

주장하는 글

013쪽

- 1 ⑤ 2 (1) 서론 (2) 사실, 의견 3 ②

1 <보기>는 주장하는 글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하는 글의 특성은 설득성이다.

2 (1)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서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을 밝힌다.
(2)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

3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① 주장하는 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쓴이의 주장(의견)을 전개하는 글로, 글쓴이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는 소설이나 극이다.

③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이다.

④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생각인 주장이 드러나는 글로, 글쓴이의 생각을 가급적 배제해야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⑤ 글쓴이의 정서를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표현한 글은 시이다.

토의

014쪽

1 (1) 사회자 (2) 청중 **2** ㉠-㉡-㉢-㉣ **3** ㉤

1 (1) 사회자는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의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토의의 방향을 안내하고, 토의가 끝나면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2) 토의 참여자인 청중은 토의자들이 발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토의자 간의 논점의 차이를 판단하여 토의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역할을 한다.

2 토의는 일반적으로 토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이중 하나를 토의의 주제로 삼는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토의 준비하기(㉡)', 각자 준비해 온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토의 하기(㉢)', 토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토의 내용 정리하기(㉣)'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3 토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한편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 것은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토론의 주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토론

015쪽

1 (1) O (2) O (3) X **2** (1) 사회자 (2) 근거 **3** ㉤

1 (1) 토론의 논제는 토론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제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논제의 조건

-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것이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한쪽에 유리하거나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2) 토론의 청중은 토론을 관람하는 사람으로 토론자들의 주장을 평가하기도 한다.

(3)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 가야 한다.

2 (1) 사회자는 토론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토론의 논제와 규칙, 순서를 제시하며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한다.

(2)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토론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며, 발언 시간이나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다.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01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소단원 한눈에 보기

020~023쪽

- 1 (1) O (2) X 2 (1) 반복 (2) 원관념, 보조 관념
3 ② 4 (1) 봄눈 (2) 의성어 (3) 생동감 5 ③
6 ③ 7 ③ 8 (1) O (2) O (3) X 9 (1) 별, 꽃
(2) 갖고 싶다 10 ③ 11 (1) 꽃 (2) 꿈, 목표
(3) 어린, 청소년 12 (1) O (2) X

1 (1)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2) 운율은 같은 호흡이나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뿐만 아니라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 문장 구조의 반복과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2 (1)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같은 호흡이나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으로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2)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무생물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의 방법은 활유이다.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4 (1) 「3월」의 전반부에서는 봄눈이 내려 산과 들에 쌓인 풍경을, 후반부에서는 그 다음 날 봄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2) 「3월」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고,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 「3월」은 직유, 은유, 의인과 같은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난 봄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5 「3월」의 전반부는 봄눈이 내려 산과 들에 쌓이고 골짜기의 물소리만 나직하게 들리는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6 「3월」은 ‘골짜기를 /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 나직 나직 // 자장가처럼 들리던 / 하루가 지나고’와 같이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비유의 종류는 직유이다.

7 상징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상징을 사용하면 대상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②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의인이다.

④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은 운율이다.

⑤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비유이다.

8 (1) 상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을 사용하면 작품을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 「사랑하는 별 하나」의 말하는 이는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랑하는 별 하나’와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 「사랑하는 별 하나」는 1연과 2연에서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 ~주는 ~이 될 수 있을까.’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9 (1) 「사랑하는 별 하나」의 말하는 이는 1연과 2연에서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 될 수 있을까.’,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게 ‘별’, ‘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 「사랑하는 별 하나」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0 「사랑하는 별 하나」에서 ‘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이자 힘이 되는 존재를 상징한다.

11 (1) 「사랑하는 별 하나」에서 ‘꽃’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안겨 웃어 주는 대상으로,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이자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2) 「사랑하는 별 하나」는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길을 비추어 주는 /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갖고 싶다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길’은 말하는 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열보다 큰 아홉」은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점에서 어른을 ‘열’에,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아홉’에 비유하고 있다. 이로써 글쓴이는 숫자 아홉처럼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2 (1) 글쓴이는 우리 선조들이 아홉 구 자가 두 번 든 음력 구 월 구 일을 중양절이라는 큰 명절로 정하고 쇠어 온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2)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는 ‘아홉’이다. 반면, ‘열’은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수를 의미한다.

내용 확인 문제

026~027쪽

1 ⑤ 2 직유

1 이 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의 반복과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일정한 글자 수는 반복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이 시에는 '좌아악', '악자지깔'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 시는 2연과 6연에서 '점심', '산', '들'과 같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③ 이 시는 2연과 6연에서 '점심 무렵에는'과 같이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④ 이 시는 1연과 5연에서 '~더니'의 문장 구조를, 2연과 6연에서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과 같이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2 <보기>는 '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물소리'를 '자장가'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사용된 비유의 종류는 직유이다.

활동 응용 문제

028~031쪽

1 ③ 2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 3 ⑤ 4 ③
5 ⑤ 6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은 모두 소중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1 이 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의 반복과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ㄷ, ㄹ'이다.

2 이 시의 1~4연은 산과 들에 봄눈이 쌓이고 골짜기의 물소리만 나직하게 들리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이다.

3 이 시는 7연과 8연에서 '아이들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봄눈이 걷힌 자리에 '파란 싹'이 돌아난 모습을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비유의 종류는 직유이다.

오답 풀이 ① '봄눈'은 '봄에 내리는 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의 중심 소재이다.

② '골짜기'는 '골짜기'의 준말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다.

③ '아침'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이다.

④ '물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의미한다.

4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

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빗둘러서 말한다. 따라서 비유를 활용하면 대상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5 동운은 꿈을 향해 느리더라도 천천히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리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달팽이'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6 한솔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선물처럼 소중한 시간 ~♡'이란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은 모두 소중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진과 상태 메시지의 문구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
시간과 선물의 공통점을 서술하였다.	☐

내용 확인 문제

032~033쪽

1 간접적(인), 직접적(인) 2 (1) O (2) X 3 ⑤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소망은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나면서 점층적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1)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고,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이 시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3 이 시에서 '꽃'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안기어 웃어 주는 대상이다. 따라서 '꽃'은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해 주고 포용해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034~036쪽

1 될 수 있을까 2 ⑤ 3 ③ 4 ① 5 ⑤

1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간접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2 이 시의 2연에서 말하는 이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설 때 ‘하얀 들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3연에서 말하는 이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외로울 때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는 존재를 소망하고 있다.

② 이 시의 4연에서 말하는 이는 ‘마음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힘든 현실을 의미한다.

③ 이 시의 1연에서 말하는 이는 ‘외로워 쳐다보면 / 눈 마주쳐 마음 비쳐 주는 /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외로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비쳐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의 2연에서 말하는 이는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 가슴에 화안히 안기어 / 눈물짓듯 웃어 주는 /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일이 괴로운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 주는 ‘하얀 들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 이 시의 4연에서 말하는 이는 ‘마음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의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의미한다.

4 시의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운율이다. 상징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징을 사용하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대상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5 연작시는 개인의 생각이 담긴 시의 부분들을 모아서 한 편의 시로 만드는 것으로, 시를 쓸 때 비유를 사용하면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유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연작시를 짓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내용 확인 문제

037~038쪽

1 ⑤ 2 청소년은 아홉과 같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3 (1) O (2) O

1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아홉 구 자가 두 번 든 음력 구 월 구 일을 중양절이라는 큰 명절로 정하고 쇠어 왔다는 점에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열’은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② 이 글에서 ‘열’은 모든 것을 이룬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반면,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부족함을 지닌 수를 의미한다.

③ 이 글에서 ‘아홉’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수를 의미한다. 글쓴이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 전부터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아홉’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를 의미한다.

2 이 글의 글쓴이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와 소중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과 ‘아홉’의 공통점을 찾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 (1) 이 글은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불완전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이 글은 마지막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을 문장의 끝에 놓음으로써 ‘아홉’과 같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039쪽

1 ④ 2 ①

1 ‘아홉’과 ‘청소년’은 모두 딱 차기 이전의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 풀이 이 글은 ‘어른’을 ‘열’에, ‘청소년’을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것(+)과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은 모두 ‘열’과 ‘어른’의 공통점이다.

2 은유는 두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간접적으로 빗대는 방법으로, 주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갈대 같은 내 마음’은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두 대상을 직접 빗대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소단원 마무리

040~041쪽

1 ④ 2 ④ 3 (1) O (2) X (3) O 4 (1) O
(2) O (3) X 5 ⑤ 6 ①

1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도 운율이 형성될 수 있다.

2 「3월」은 직유를 사용하여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서 튀어나온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아이들'이다.

3 (1)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를 통해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신선함과 재미를 준다.

(2) 비유는 말하려는 대상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빙 둘러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의 사전적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나타내는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독자는 비유가 사용된 글을 읽으며 그 장면을 상상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다.

4 (1) 이 시에서 '별'은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존재로, 말하는 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2) 이 시에서 '꽃'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안기어 웃어 주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고 공감해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3)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처한 힘든 현실을 암시하는 것은 '마음 어두운 밤'이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말하는 이는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을 소망한다는 점에서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사랑하는 별 하나」의 말하는 이는 1연과 2연에서 '별', '꽃'과 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3연과 4연에서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와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시의 주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삶에 대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6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상징을 사용하여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를 '별'이라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상징을 사용하면 표현하려는 대상이 길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043~045쪽

1단계 | 1 특성 2 순수하다 3 빗대다 4 의태어 5 완전하다 6 위안 7 효과 8 의인 9 왁자지껄 10 어설피다 11 관점 12 구체적인 13 운율 14 비유 15 직유

2단계 | 1 골짜기 2 공감 3 구절 4 익히 5 연작시 6 중앙절 7 부여하다 8 생생하다 9 서글프다 10 수록하다 11 아우르다 12 우러르다 13 이룩하다 14 포용하다

3단계 | 1 보완한 2 형성하는 3 구성하였다 4 쇠려 5 표현 6 예 그는 시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을 틀고 시 낭송을 시작하였다. 7 예 고전 미술 작품은 책에서 볼 때보다 눈으로 직접 감상할 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8 예 그 친구와 나는 공통점이 많아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9 예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10 예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단계

1 **오답 풀이** 요소: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등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2 **오답 풀이** 참신하다: 새롭고 산뜻하다.

3 **오답 풀이** 비교하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등을 고찰하다.

4 **오답 풀이**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5 **오답 풀이** 무한하다: 수, 양, 공간, 시간 등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6 **오답 풀이** 소망: 어떤 일을 바램, 또는 그 바라는 것.

7 **오답 풀이** 성질: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8 **오답 풀이** 간접적: 중간에 매개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통하여 연결되는 것.

9 **오답 풀이** 나죽 나죽: 나직나직, 소리가 다 꽤 낮은 모양.

10 **오답 풀이** 막연하다: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11 **오답 풀이** 발상: 어떤 생각을 해 냄, 또는 그 생각.

12 **오답 풀이** 추상적: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13 **오답 풀이** 가락: 목소리의 높낮이나 길이를 통해 느껴지는 말의 기운.

14 **오답 풀이** 상징: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난 표지(標識)·기호·물건 등.

15 **오답 풀이** 은유: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소단원 평가

046~047쪽

01 ④ **02** ④ **03** ⑤ **04** 봄눈, 하얀 이불과 봄눈은 모두 하얗고 어떠한 대상을 덮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05 ③ **0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소망한다. **07** ④

08 청소년은 아홉과 같이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01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 시에서는 직유, 은유, 의인과 같은 비유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3월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이른 봄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상징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와 같이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②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효과를 준다. 이 시에서는 '좌아악', '왁자지껄' 등의 의성어가 사용되었다.

③ 이 시의 1~4연에서는 산과 들에 봄눈이 내려 쌓인 풍경을, 5~8연에서는 날이 바뀌며 쌓였던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루가 지나고'라는 표현에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시는 직유, 은유, 의인 등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3월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의 전반부인 1~4연에서는 '잠이 들었다', '자장가처럼 들리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봄눈이 내려 산과 들에 쌓인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좌아악 깔린 이불을 / 모조리 / 걷어버렸다', '왁자지껄 / 일어나 있다' 등의 표현을 통해 다음날 눈이 녹고 새싹이 일어난 이른 봄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전반부의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후반부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보기〉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은 의태어이다. 이 시에서는 '핑핑', '나죽나죽',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른 봄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이 시는 봄눈이 내리는 이른 3월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의미하며, '하얀 이불'과 '봄눈'은 모두 하얗고 무언가를 덮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평가 기준	확인 ☒
'하얀 이불'이 표현하는 대상을 서술하였다.	☐
'하얀 이불'과 '봄눈'의 공통점을 한 가지 이상 찾아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 '길' 등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일정한 글자 수는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②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고,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이 시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물음은 나타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간접적으로 빗대는 것은 비유이다. 이 시는 상징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0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별', '꽃'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과 '가슴에 사랑하는 별'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별', '꽃' 등 이 시에 나타난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7 ㉠은 세상일이 괴로울 때 가슴에 안겨 환히 웃어 주는 대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의 말하는 이가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8 〈보기〉는 '청소년'을 '아홉'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청소년'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찾아 서술하였다.	☐
〈보기〉에 나타난 '청소년'의 특성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2 추론하며 듣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050~051쪽

- 1 (1) O (2) X (3) O 2 (1) 상황 맥락 (2) 화자, 청자
(3) 의사소통 3 인터뷰, 전문가 4 (1) O (2) X (3) O
5 (1) 가치관 (2) 마음의 근육 (3) 자부심 6 ④

1 (1)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나 관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화를 들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2) 화자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들어야 한다. 이때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로는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이 있다.

(3) 화자의 의도는 담화의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같은 말이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2 (1)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한다.
(2)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인 상황 맥락은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으로 구성된다.
(3) 같은 말이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명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3 자전거 안전모 착용 관련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보도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정인과의 인터뷰,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 신뢰도 높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4 (1) 초등학교 시절, 화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다.
(2) 화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겨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3) 초등학교 시절 화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였으나, 격투기 선수가 된 이후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화자는 시련을 대하는 자신의 관점이 변화한 경험담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5 (1) 설득 담화를 들을 때에는 화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화자가 청중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2) 「10대가 말하다 연설」의 화자는 시련을 대하는 자신의 관점이 변화하게 된 경험담을 제시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 「10대가 말하다 연설」의 화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이후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겨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10 정답과 해설

6 ‘나부터 5초만’ 공익 광고에서는 “5초만!”이라는 말의 뜻이 승강장, 수영장, 건널목 등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5초만!”의 의미가 달라지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장소이다.

활동 응용 문제

054~063쪽

- 1 ⑤ 2 ⑤ 3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명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④ 5 ③
6 (1) O (2) O (3) X 7 처벌 규정 8 ⑤
9 외면, 내면 10 ④ 11 ④ 12 마음의 근육

1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날수록 말의 의미가 정확해지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담화는 지우와 서아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서아가 늦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몇 시니?”라는 지우의 말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약속 시간에 늦은 서아가 지우에게 사과를 하는 대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같은 말이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을 때의 효과를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

4 종하와 민서의 담화에서 “괜찮아.”는 과자를 먹으라는 종하의 권유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괜찮아.”는 상황 맥락에 따라 위로, 걱정, 승낙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5 〈보기〉의 화자는 청소를 하던 중에 화자는 민수에게 많이 바쁜지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보기〉의 화자는 민수에게 청소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6 (1) 자전거 이용자 1, 2, 3, 4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편함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기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낮은 안전모 착용률과 같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이 뉴스 보도는 자전거 이용자 1, 2, 3, 4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7 기자는 2018년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며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자가 생각하는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실태의 원인은 처벌 규정의 부재임을 알 수 있다.

8 화자는 마음의 근육이 생긴 덕분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가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화자는 외모가 예쁘게 나온 사진과 격투기 시합이 끝난 직후의 사진 중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인생 사진이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10 화자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자기 비하에 빠져 있던 중 권투 연습장의 회원 모집 전단을 보고, 그 전단이 마치 동아줄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후 권투를 배우면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보기>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④번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를 따돌리던 친구들이 화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체육관 관장님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화자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화자가 부모님과 선생님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말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화자는 권투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화자가 권투를 배우며 생긴 마음의 근육 덕분에 시련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자가 친구들에게 맞서기 위해 권투를 배웠다고 볼 수 없다.

11 화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격투기 시합이 끝난 직후의 사진을 자신의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12 화자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시련을 극복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청중에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마음의 근육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더 강하고 단단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 받지 않고 시련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였다.

활동 응용 문제

064~065쪽

- 1 ③ 2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3 ③

1 이 광고는 공익 광고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두르다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5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광고는 지방의 축제나 행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이 광고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광고는 생활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익 광고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볼 수 없다.

2 이 광고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용된 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점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급하게 건너지 않고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건너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광고에 사용된 “5초만!”이라는 말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

3 5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이 광고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건널목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신호등이 안전하게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소단원 마무리

066~067쪽

- 1 (1) X (2) X (3) O 2 ⑤ 3 ③
 4 (1) X (2) X (3) O 5 (1) X (2) O (3) X 6 ④

1 (1)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와 관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담화를 들어야 한다.
 (2) 청자는 화자와 함께 담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3) 담화에서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명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2 답화에서 화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면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말을 해석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설득 담화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 담화에서도 담화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일상 담화는 대부분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며 들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설득 담화는 화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화자가 청중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④ 담화에서 말의 의미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인 상황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형식의 말이라도 그 상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⑤ 정보 전달 담화에서 화자는 담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 통계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4 (1) 동일한 형태의 발화도 그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진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말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2) “괜찮아.”는 상황에 따라 거절, 위로, 승낙, 걱정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과자 좀 먹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점에서, “괜찮아.”는 거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3) 내일까지 학급 게시판을 꾸며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일 시간 있어?”라는 말은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볼 수 있다.

5 (1)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까닭은 불편해서임을 알 수 있다.
 (2)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3) 최근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안전모 착용률은 1퍼센트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6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자기 비하에 빠졌던 화자는 권투를 배우면서 본래의 활발하던 성격을 되찾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가 자기 비하가 심해져 권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069~071쪽

|1단계| 1 의미 2 대안 3 원활하다 4 표면적

5 궁극적 6 개정 7 짐작하다 8 공공

9 반영되다 10 담화 11 설득 12 태도

13 보도 14 가상 15 통계

|2단계| 1 맥락 2 본래 3 비하 4 시련

5 일손 6 전단 7 주행 8 화자

9 가치관 10 격투기 11 동아줄 12 실효성

13 자책감 14 콤플렉스

|3단계| 1 차림표 2 추론하였다 3 감량하였다

4 고려하여 5 근거 6 예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7 예 모르는 단어를 사전

에 검색해 보자. 8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도전

하라. 9 예 경기를 보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판정을 비난

하였다. 10 예 나는 시험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1단계|

1 **오답 풀이**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포함.

2 **오답 풀이**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3 **오답 풀이** 명확하다: 명백하고 확실하다.

4 **오답 풀이** 일방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또는 그런 것.

5 **오답 풀이** 본격적: 제 궤도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 또는 그런 것.

6 **오답 풀이** 규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7 **오답 풀이** 파악하다: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

8 **오답 풀이** 중고: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

9 **오답 풀이** 분석되다: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이 풀려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뉜다.

10 **오답 풀이** 소통: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11 **오답 풀이** 당부: 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12 **오답 풀이**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13 **오답 풀이** 연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

14 **오답 풀이** 기상: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15 **오답 풀이** 해석: 사물이나 행위 등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 또는 그 내용.

소단원 평가

072-073쪽

01 ④ 02 ⑤ 03 ⑤ 04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05 ① 06 ④ 07 ④ 08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09 ①

01 (가)와 (나)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해당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가)에서는 약속 시간에 늦은 여학생에게 ‘왜 이렇게 늦었어?’라는 의미로, (나)에서는 현재 정확한 시간이 궁금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지금 시계가 가리키는 정확한 시간이 궁금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2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제시하며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03 자전거 이용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뉴스 보도는 자전거 이용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 줄 뿐, 자전거 도로의 설치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자전거 이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는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기자의 말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04 기자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기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제시함으로써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06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을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으나, 관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7 (다)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08 화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격투기 시합이 끝난 직후의 사진을 자신의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9 다양한 장소에서 “5초만!”이라는 문구는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수영장에서 “5초만!”라는 말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먼저 하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082-085쪽

01 ① 02 ② 03 ⑤ 04 은유를 사용하여 ‘봄눈’을 ‘하얀 이불’로 표현하였다. 05 ⑤ 06 ④
07 ④ 08 ④ 09 ④ 10 내가 어제 팔을 다쳐서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11 ④ 12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의미한다. 13 ②
14 ④ 15 마음의 근육 16 ④

01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같이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다시 아침이 오고’라는 표현에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봄눈’을 통해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이다. (나)는 ‘별’, ‘꽃’, ‘길’ 등의 상징적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가)는 상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말하는 이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02 상징을 사용하면 대상에게 본래의 사전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03 화자는 '갖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 '봄눈'은 이른 봄에 내리는 눈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② ㉡은 '나죽 나죽'이란 의성어를 사용하여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③ (가)에서 '하얀 이불'은 '봄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산과 들에 덮인 눈이 녹은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봄눈이 녹으며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힘든 현실을 암시한다.

04 ㉤는 이어 주는 말 없이 '봄눈'을 '하얀 이불'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은유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용된 표현 방법의 종류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05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 글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상징은 사용되지 않았다.

06 글쓴이는 우리 선조들이 아홉 구 자가 두 번 든 음력 구 월 구 일을 중양절이라는 큰 명절로 정하고 쇠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다.

07 ㉠은 '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른'을 '열'에, '청소년'을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파란 싹들'을 '아이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직유이다.

08 화자와 청자 모두 담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담화에서 청자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09 동일한 형식의 말이라도 그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담화에서 "과자 좀 먹을까?"라는 종하의 권유에 대한 민서의 "괜찮아."는 '고맙지만 과자는 사양할게.'라는 거절의 의미로 사용된 반면, "많이 다쳤어?"라는 종하의 걱정에 대한 민서의 "괜찮아."는 '다치긴 했지만 참을 만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0 민서는 팔을 다쳐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은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종하의 말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달라는 종하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
종하의 말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였다.	☐

14 정답과 해설

11 도로 교통공단 교육 운영처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난 사람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20퍼센트라고 하였고, 최근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도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안전모 착용률은 1퍼센트를 밑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률은 20퍼센트 이하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12 기자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의미를 알맞게 썼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썼다.	☐

13 설득 담화 중 연설을 들을 때에는 화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화자가 청중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14 현재의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긴 상태이다. 이러한 현재의 화자가 자기 비하에 빠졌던 초등학교 시절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15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가치관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소재는 '마음의 근육'이다.

16 ㉡은 화자가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마음의 근육이 생긴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화자는 이를 자신의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086-087쪽

01 (가)에서 주로 사용된 비유는 원관념을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지만 (나)에서 주로 사용된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적다. **02** 파란 싹들이 왁 자지컬 일어나 있다, 대상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파란 싹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03**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04**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05** 화자는 권투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느꼈다. **06** 5초의 짧은 시간을 들이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01 (가)는 비유가 주로 사용된 반면, (나)는 상징이 주로 사용되었다. 비유와 상징은 어떠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대상의 결합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현하려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적고 원관념은 생략한 채 보조 관념만 제시하기 때문에 표현하려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평가 기준

- 상 (가)와 (나)의 주된 표현 방법을 찾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의 유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중 (가)와 (나)의 주된 표현 방법을 찾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의 유무에 관하여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 하 (가)와 (나)의 주된 표현 방법만 찾아 서술하였다.

02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의인이다. (가)는 '파란 싹들이 / 왁 자지컬 / 일어나 있다'라는 구절에서 '파란 싹들'을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싹이 돋아난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가)에서 의인이 사용된 구절을 찾고, 의인의 구체적인 효과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중 (가)에서 의인이 사용된 구절을 찾고, 의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서술하였다.
- 하 (가)에서 의인이 사용된 구절만 찾아 서술하였다.

03 [A]에서 '별'과 '꽃'은 외롭고 힘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말하는 이는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별', '꽃'처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별', '꽃'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여 [A]에서 드러나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중 '별', '꽃'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여 [A]에서 드러나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서술하였다.
- 하 '별', '꽃'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말하는 이의 소망만을 서술하였다.

04 화자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비하에 빠졌던 것과 달리, 격투기 선수가 된 이후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화자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단단해진 마음의 근육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사랑하게 된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중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사랑하게 된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서술하였다.
- 하 화자의 태도 변화만 서술하였다.

05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자기 비하에 빠졌던 화자는 중 권투 연습장의 회원 모집 전단을 보고, 그 전단이 마치 동아줄 같다고 느꼈다. 이후 권투를 배우면서 화자는 본래의 활발하던 성격을 되찾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화자는 권투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의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화자가 권투에 부여한 의미를 추론하여 ㉠과 같이 표현한 의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중 ㉠의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화자가 권투에 부여한 의미를 추론하여 서술하였다.
- 하 ㉠의 전후 맥락은 파악하였으나 화자가 권투에 부여한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6 승강장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승강장을 이용할 때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합해 보면, <보기>의 광고는 5초의 짧은 시간을 들여 생활 안전 규칙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보기>의 두 광고에서 "5초만!"이란 말이 지니는 의미를 바탕으로, 두 광고가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중 <보기>의 두 광고에서 "5초만!"이란 말이 지니는 의미를 바탕으로, 두 광고가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서술하였다.
- 하 <보기>의 두 광고 중 하나의 광고에서 "5초만!"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1 이 시는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나즉 나즉’, ‘자장자처럼’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골짜기의 물이 역동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클로즈업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보기>는 각 장을 네 번씩 끊어 읽음으로써 일정한 호흡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이 시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와 같이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03 ㉠은 의인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을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의인이 사용된 것은 ⑤번이다.

오답 풀이 ① ‘처럼’이란 표현을 통해 ‘시간’을 ‘선물’에 직접적으로 빗대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② ‘갈다’라는 표현을 통해 ‘청소년’을 ‘시냇물’에 직접적으로 빗대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③ 이어 주는 말 없이 ‘친구들’을 ‘비타민’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④ 비유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04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건널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의 “곧 빨간불이 짙아요.”라는 말은 잠시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완전히 바뀌면 천천히 길을 건너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에서 인물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보다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인물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 것이 적절하다.

05 기자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나)의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건널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초만!”라는 말은 신호등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01 요약하며 읽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094~097쪽

1 (1) X (2) O (3) O 2 글의 구조에 따른 요약하기
3 (1) 선택 (2) 삭제 (3) 일반화 4 ⑤ 5 스마트폰
과의존 6 ③ 7 ④ 8 ⑤ 9 ⑤
10 ② 11 ① 12 (1) O (2) O (3) X (4) O

1 (1) 요약하기는 글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2)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려야 한다.
(3)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 문단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려야 한다.

2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간추리고,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요약하는 것은 글의 구조에 따른 요약하기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3 (1) 요약하기의 규칙 중 ‘선택’은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 요약하기의 규칙 중 ‘삭제’는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 예시 등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요약하기의 규칙 중 ‘일반화’는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내용을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4 「스마트폰은 나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에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글이다.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이야기 글을 간추리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③, ④ 주장하는 글을 간추리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5 글쓴이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되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설명은 인과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7 「스마트폰은 나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설명하는 글이다. 1~2문단은 스마트폰의 기능과 의의를 설명하는 ‘처음’ 부분, 3~6문단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중간’ 부분, 7문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나타나 있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8 글쓴이는 ‘결론’에서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는 독자가 지녀야 할 의류 소비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9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에 맞추어 빠르게 생산되고 저렴하게 판매되는 옷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글쓴이는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섬유를 제조하고 가공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며,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도 심각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은 의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해당한다.

11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옷이 필요할 때 새 옷을 사지 않고, 중고 의류를 사는 것이 버려지는 옷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였지만, 새 옷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해야 하며 중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구매할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12 (1) 스님은 땀(소금)에 젖어 눅눅해진 자신의 옷을 만져 보고,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틀림없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스님은 농부와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내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루 종일 동냥한 쌀을 걸었다.
(3) 농부는 농사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를 내기에 걸었으므로 논과 밭을 내기에 걸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농부는 틀림없이 곧 비가 올 것이라는 스님의 말에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 확인 문제

102~107쪽

- | | | |
|------|------------------------|-----|
| 1 ④ | 2 일반화의 규칙을 사용하여 요약하였다. | 3 ④ |
| 4 ④ | 5 ⑤ | 6 ④ |
| | 7 ① | 8 ② |
| 10 ③ | | |

1 ㉠문단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방송 콘텐츠 제작의 도구라는 기능은 찾을 수 없다.

2 ㉠문단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문단을 요약할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한 기능’으로 일반화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3 ㉡문단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는 세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4 ㉢문단에서 인간의 뇌는 청소년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데,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도 함께 재편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주로 발달한다고 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문단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에서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약화된다고 하였다. 청각을 처리하는 신경 회로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6 ㉣문단에 따르면 [A]의 실험은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7 ㉤문단에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깨어 있는 동안 학습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기 기억으로 머물다 사라지게 되므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깨어 있는 동안 학습된 수많은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여러 정보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연결되면서 창의력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수면과 관련된 뇌 영역의 발달이 약화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우리가 잠을 잘 때 깨어 있는 동안 학습된 수많은 정보는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깨어 있는 동안 학습된 수많은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기 기억으로 머물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8 ㉢문단에서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지므로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전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9 ㉢문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자극만 추구하게 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은 ㉡이다.



10 글쓴이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스마트폰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108~111쪽

1 ⑤ **2**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기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책은 읽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영상만 보려고 하는 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독서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4** ③ **5** ④ **6** ⑤

7 내용 구조도 **8** ⑤

1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끝’ 부분에서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글쓴이의 당부를 나타내고 있지만,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의 주제를 바르게 요약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 지아의 읽기 목적은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영상만 보려고 하는 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독서해야 한다고 설득해 볼 것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아의 읽기 목적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4 읽기 목적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교양을 쌓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등 글을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의 종류가 같더라도 읽기 목적은 다를 수 있다.
 ② 읽기 목적은 글을 읽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④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글의 일부 문단을 중점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⑤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하는 글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5 ㉠문단에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일상생활에는 흥미를 잃고,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자극만 추구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보기>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단을 요약해야 한다.

18 정답과 해설

6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된 책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요약할 때에는 내용을 학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7 내용 구조도는 내용 간의 관계,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간단한 선과 도형으로 요약한 것이다.

8 교과서는 학습을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따라서 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을 정리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교과서 내용을 요약할 때 적절하지 않다.

내용 확인 문제
112~117쪽

1 ③ **2** (1) O (2) O (3) X **3** ④ **4**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오염수가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5** ⑤ **6** ③ **7** ①

8 ③ **9** ④ **10** (1) 재구성 (2) 선택 (3) 선택

1 패스트 푸드는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조리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고,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에 맞추어 빠르게 생산되고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패스트 푸드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품목이 다양하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1) 이 글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2)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지적하고 있다.
 (3) 이 글에 따르면 합성 섬유를 제조할 때에는 면섬유를 제조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되는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3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화된다고 하였지만 변이종이 나타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옷을 만들 때에는 대부분 염색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유황이나 비소, 포름알데히드 등 많은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 화학 물질은 물에 섞여 배출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의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이 오염되는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5 의류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과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비교하여 수자원 낭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6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옷 중 5퍼센트만 재활용되고, 95%는 다른 나라로 수출되지만, 그중 40퍼센트는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지거나 소각된다고 하였다.

7 글쓴이는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의류 쓰레기 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문제, 매립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유독 가스를 내뿜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합성 섬유 재질의 옷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주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8 글쓴이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 중 옷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9 글쓴이는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빠르게 쌓여 가는 옷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10 (1) [5]문단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2) [6]문단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을 선택하여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3) [7]문단에서는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을 선택하여 '빠르게 쌓여 가는 옷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118~119쪽

- 1 (1) 문제점, 해결 방안 (2) 요약하기 2 ④ 3 ②
4 ②

1 (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 해야 한다.

(2) 요약하기란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것으로, 단순히 글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읽기 전략이다.

2 주장하는 글의 '서론'에는 글을 쓰게 된 배경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 글의 '서론'에서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이 글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과 관련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4 이 글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 활동 게시물을 만든다면 이 글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최신패션소개'라는 해시태그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과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 확인 문제

120~123쪽

- 1 (1) X (2) O (3) O 2 ② 3 소 4 ⑤
5 스님은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자신의 옷(장삼)을 만져 보니 몸이 눅눅했기 때문에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6 ⑤ 7 ① 8 ⑤

1 (1) 이 글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스님과 농부 한 사람이 실제 존재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옛날'이고, 장소는 '나무 그늘' 아래이므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쉬어 가기로 했어.', '~쉬게 되었단다.' 등 실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구어체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농부가 스님에게 곧 모를 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라고 말하자, 스님은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농부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두 사람은 날씨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된다.

3 농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농사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를 내기에 걸었다.

4 농부는 오랜 경험으로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생각하여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스님은 비가 안 온다고 걱정을 하는 농부를 보고 자신의 옷을 만져 본 후 툼없이 곧 비가 내릴 것이라 말한다. 후에 농부가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스님은 늘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자신의 옷(장삼)이 눅눅한 것을 보고 공기 속에 물기가 많다고 생각하여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스님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6 스님과의 내기에서 소를 내놓은 농부는 내기에서 져서 소를 잃을 뻔했지만, 내기에서 이긴 스님이 농사짓는 데 쓰라고 소를 도로 농부에게 주었다.

7 농부는 모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맞춰 비가 내리자 모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했던 것이다.

8 이 글의 ‘끝’ 부분에서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는 데에서 ‘소내기’라고 했다가 요즈음에는 ‘소나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활동

응용 문제

124~125쪽

1 ③

2 ④

3 ③

4 ④

1 스님과 농부는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내기를 하기로 했으므로, 농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내기를 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글에서 농부는 비가 와서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내기에서 져서 소를 스님에게 주었지만 스님이 자신에게는 소가 아무 소용없다며 농사짓는 데 쓰라고 소를 다시 돌려주어서 좋은 일이 되었다. 또한 스님은 결국 비가 와서 자신의 말이 맞았고, 내기에서 이겨서 내기에 건 쌀을 농부에게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 결국 농부와 스님 모두 기분 좋게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며 사건이 비극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이 이야기는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를 걸고 내기를 한 데서 ‘소내기’라고 했다가 요즈음에는 ‘소나기’라고 부르게 된 유래를 밝히고 있으므로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왜 ‘소나기’라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문구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스님과 농부는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를 두고 내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거대한 자연과 당당히 맞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스님은 소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스님이 무더운 여름날 동냥을 다닌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까닭이나 그와 관련된 숨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등장하지만, 농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체력 진단과 적합한 체력 관리 방법’은 설명하는 글에 가깝다. 따라서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기보다는 설명 대상 및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마무리

126~127쪽

- 1 ④ 2 (1) X (2) O (3) X 3 ①
 4 (1) X (2) O (3) O (4) X

1 글을 요약할 때에는 자신의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글에 쓰인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간추려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1)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다.

(2)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가 제시하는 주장과 근거 혹은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3) 이야기 글을 요약할 때에는 독자의 읽기 목적과 함께 이야기 글의 주요 구성 요소와 사건 전개 단계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3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 정서적 안정감이 저하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1)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2)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거치게 되는 염색 가공 과정에서 수자원의 오염이 발생하고, 옷을 만들 때에도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였다.

(3) 버려진 옷을 처리하려면 매립을 하거나 태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매립을 하면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소각을 하면 유독 가스가 발생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4)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매할 수 있는 의류의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해력 키우기

129~131쪽

- 1단계** | 1 미처 2 지표면 3 유발하다 4 사례
5 요약 6 정화 7 이면 8 간추리다
9 유도하다 10 흔하다 11 유래 12 금세
13 공정 14 동냥 15 체계적
- 2단계** | 1 구조 2 분포 3 사고 4 약취
5 효용 6 이성적 7 치명적 8 침출수
9 횡재수 10 강화되다 11 녹록하다
12 저하되다 13 전환되다 14 해당하다
- 3단계** | 1 부리는 2 영역 3 성취감
4 대두되고 5 발맞추기 6 예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친구 삼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7 예 사진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 봐. 8 예 거리에 자동차가 많아지니 대기 오염이 심화되는 것 같다. 9 예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10 예 글을 쓰기 전, 개요를 작성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1단계

- 1 **오답 풀이** 고루: 두루 빼놓지 않고.
- 2 **오답 풀이** 해일: 해저의 지각 변동이나 해상의 기상 변화에 의하여 갑자기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 또는 그런 현상.
- 3 **오답 풀이** 미처: 영향이나 작용 등이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
- 4 **오답 풀이** 재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에 만들어 아직 상점에 내놓지 아니하였거나, 팔다가 남아서 창고에 쌓아 놓은 물건.
- 5 **오답 풀이** 분산되다: 갈라져 흩어지다.
- 6 **오답 풀이** 가공: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
- 7 **오답 풀이** 평면: 평평한 표면.
- 8 **오답 풀이** 파악하다: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
- 9 **오답 풀이** 지향하다: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
- 10 **오답 풀이** 고르다: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11 **오답 풀이** 바랑: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 12 **오답 풀이** 도로: 먼저와 다름없이. 또는 본래의 상태대로.
- 13 **오답 풀이** 영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14 **오답 풀이** 소승: 승려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15 **오답 풀이** 지리적: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등의 형편에 관한. 또는 그런 것.

소단원 평가

132~135쪽

- 01 ④ 02 ② 03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 04 ⑤
05 ⑤ 06 ③ 07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08 ④ 09 ①
10 재구성 11 ⑤ 12 ⑤ 13 ① 14 ②
15 모를 내야 하는 때에 맞춰 비가 왔기 때문이다.

01 (나)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수면 부족을 일으켜 창의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이는 모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므로, (다)에서 (나)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기본적인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음악 감상, 영화나 드라마 시청, 게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창구, 쇼핑 및 결제의 수단, 인터넷 강의 시청 및 강의 내용 필기의 도구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환경 심리학 학술지에 소개된 실험의 내용과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⑤ (다)에 따르면 잠을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의 영향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고 한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잠이 부족해지고, 잠이 부족해짐에 따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저하된다. 이는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에 미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2 (나)에 따르면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 결과, 우리가 전자 기기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03 (다)의 중심 문장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켜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와 '이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지며 창의력 또한 저하되어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다. 이를 재구성하여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4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글을 쓴 목적, 방법 등을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끝’ 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끝’ 부분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주장하는 글의 경우 ‘본론’ 부분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05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도 함께 재편된다는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뇌의 발달에 관한 설명이다.

06 (가)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은 ㉠과 ㉡이다.

07 글쓴이는 (다) 문단의 끝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독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 문단에서 글쓴이가 당부하는 내용을 찾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8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소비자인 우리가 바람직한 의류 소비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09 (가)는 이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패스트 패션의 개념과 특징, 패스트 패션 업체와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 등을 소개하며, 패스트 패션에 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이 많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면 패스트 패션과 환경 오염에 대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10 (다)에는 중심 문장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1 독자인 우리는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지만,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글쓴이는 우리가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과 의류 소비 습관을 개선하여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과 같이 주장한 것이다.

22 정답과 해설

12 글쓴이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청바지 한 벌,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과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지구 한편에서는 마실 물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여 수자원 오염과 낭비를 막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 부족 문제는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13 이 이야기는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우연히 만난 스님과 농부가 날씨를 예측하는 내기를 하게 되고, 잠시 후 비가 내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나)에서 내기에 진 농부가 소를 잃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농부가 내기를 건 대상은 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스님이 내기를 건 대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스님은 틀림없이 곧 비가 온다고 말했는데, (나)에서 갑자기 마른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시커먼 비구름이 모여들고, 곧장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기에서 이긴 사람은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곧 모를 내야 할 텐데 날이 가물어 걱정이라는 농부의 말에 스님은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답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내기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스님은 녹록해진 자신의 장삼을 먼저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까닭을 농부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⑤ (가)에서 농부는 날이 짹짹하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5 농부는 곧 모를 내야 하는데 날이 가물어 걱정을 하고 있다가, 비가 내리자 모를 내야 하는 때에 맞춰 비가 와 기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농부가 기뻐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38쪽

1 ⑤ 2 (1) 내용 생성하기 (2) 표현하기 3 (1) 삭제
(2) 통합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의 연령과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2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도표,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개요에 따라 글을 쓴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내용의 흐름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한다.

3 (1) 수집한 자료의 내용이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판단하여 주제와 거리가 먼 자료는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때 자료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142~155쪽

- 1 ② 2 ⑤ 3 ⑤ 4 ③ 5 너비아니의 유
래,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 너비아니의 가치 등 6 ④
7 ⑤ 8 ⑤ 9 ③ 10 너비아니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1 ③
12 ④ 13 ⑤ 14 ④ 15 너비아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16 ⑤ 17 ⑤
18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9 ④
20 ②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 등을 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③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④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⑤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2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3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 등을 정한다. 어떤 기준으로 글을 점검하고 고쳐 써야 할지는 '계획하기' 단계보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다.

4 서연은 한식 중에서 김치나 비빔밥 등은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비교적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재로 글을 쓰고 싶다고 하였다.

5 서연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너비아니의 유래,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 너비아니의 가치 등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6 서연은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 책, 기사, 백과사전,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서연이 논문 자료를 수집했는지는 알 수 없다.

7 설문 조사는 특정한 주제나 목적에 관해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 등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집할 때 활용한다. 따라서 설문 조사 자료는 너비아니에 관한 학생들의 인지도에 관한 내용을 생성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8 [A]는 ○○ 중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통 음식 인지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 설문 조사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응답자 수보다 응답 수가 많다고 해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나)에서 너비아니의 재료는 소고기, 잣가루를 포함하여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의 양념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추장은 필요한 재료로 제시되지 않았다.

10 서연은 독자들에게 너비아니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에 관한 기사를 수집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너비아니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정확하게 썼다.	☐

11 (마)는 경북궁 별빛 야행 축제에 너비아니를 포함하여 전복초, 삼합정, 탕평채 등 여러 가지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하지만 도습 수라상의 구성과 조리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2 너비아니가 궁중 음식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 안내는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13 자료 (바)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 자료로,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순서를 소개한 자료 (나)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4 서연이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너비아니를 먹어 보자고 독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은 '끝'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15 최근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 너비아니로 색다른 음식을 만든 사례를 소개하면 독자에게 너비아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16 서연은 ‘이에 대해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문장이 글의 흐름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서연은 글의 제목을 ‘은은한 전통의 맛, 너도 아니? 너비아니’로 수정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② 서연은 너비아니가 어떤 음식인지 설명할 때, ‘소고기를 얇고 넓게 저며서 양념장에 재운 뒤 석쇠에 구운 음식으로’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너비아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③ 서연은 초고에서 설문 조사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설문 조사 결과 등의 자세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고쳐 쓰는 과정에서 독자가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④ 서연은 초고에서 너비아니의 재료와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글로만 제시하였다. 이에 고쳐 쓰는 과정에서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너비아니를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시각 자료)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17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을 주로 소개한 『이조궁정요리통고』에 너비아니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너비아니는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의 하나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너비아니가 일반 백성들이 즐겨 먹다가 궁중 음식으로 정착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8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정확하게 썼다.	☐

19 이 글의 ‘끝’ 부분에서는 ‘오늘 저녁에는 너비아니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너비아니를 먹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 이 글은 너비아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났는지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활동 응용 문제

156~157쪽

1 ② **2** 설명서 **3** ④

1 과학 시간에 해 본 실험의 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할 때에는 보고서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보고서는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관찰, 실험, 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정리한 글이다.

24 정답과 해설

오답 풀이 ①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 들은 사실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③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등을 설명한 글이다.

④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 주는 글이다.

⑤ 학교의 소식을 실어 가정에 알리는 글이다.

2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등을 설명한 글은 설명서이다.

3 ‘스마트 도서관 상호 대차’ 안내문은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상호 대차’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스마트 도서관 상호 대차로는 도서 대출만 가능하며, 디지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 도서관 상호 대차’ 절차와 방법을 그림과 함께 짧은 글로 설명하고 있다.

② ‘어’에 따르면 춘천시립공공도서관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누리집의 회원이 되어야 ‘스마트 도서관 상호 대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04’에 따르면 수령처를 ‘춘천시청 스마트 도서관’, ‘남춘천역 스마트 도서관’, ‘시립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⑤ ‘상호 대차’란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단원 마무리

158~159쪽

1 ① **2** (1) O (2) O (3) X (4) O (5) X (6) X

3 ④ **4** ④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란 독자에게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뜻한다.

2 (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를 정한다.

(2)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3)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도표나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개요에 따라 글을 쓴다.

(5) ‘교정쓰기’ 단계에서는 내용의 흐름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보완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6) 글쓰기 과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글쓰기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3 서연은 '교내 소식지를 읽는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너비나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 것이다.

4 (라)는 너비아니의 옛 기록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글의 '중간' 부분에서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할 때 활용되었다.

문해력 키우기

161~163쪽

- 1단계** | 1 아행 2 두루 3 고전 4 고려하다
5 기원하다 6 인지도 7 소식지 8 미네랄
9 너뽏너뽏 10 해소하다 11 플랑크톤
12 매체 13 도표 14 석쇠 15 백과사전
- 2단계** | 1 방안 2 여부 3 전통 4 정보
5 출처 6 구조화 7 끼었다 8 돌우다
9 수라상 10 저미다 11 관여하다
12 유용하다 13 통합하다 14 함유하다
- 3단계** | 1 달구어 2 전달 3 되새기고 4 유래
5 지능 6 예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다. 7 예 필요
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8 예 환경부는 각
도시의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9 예 우리 엄
마는 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친다. 10 예 나는 친구
의 권유로 그 책을 구입했다.

1단계

- 1 **오답 풀이** 선조: 먼 윗대의 조상.
- 2 **오답 풀이**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3 **오답 풀이** 유적지: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나 패총, 고분 등이 있는 곳.
- 4 **오답 풀이** 주의하다: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하다.
- 5 **오답 풀이** 생성하다: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
- 6 **오답 풀이** 중요도: 중요한 정도.
- 7 **오답 풀이** 통신문: 통신 내용을 적은 글.
- 8 **오답 풀이** 함량: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
- 9 **오답 풀이** 자근자근: 자꾸 가볍게 누르거나 밟는 모양.
- 10 **오답 풀이** 거닐다: 가까운 거리를 이리저리 한가로이 걷다.
- 11 **오답 풀이** 포유류: 포유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 12 **오답 풀이** 복수: 둘 이상의 수.
- 13 **오답 풀이** 개요: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
- 14 **오답 풀이** 구절판: 구절판찬합에 담아 먹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둘레의 여덟 칸에 각각 여덟 가지 음식을 담고, 가운데 둥근 칸에는 밀전병을 담아 두어, 둘레의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전병에 싸서 먹는다.

15 **오답 풀이** 초고: 초벌로 쓴 원고.

소단원 평가

164~16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⑤ 05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기록한다. /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등 06 ⑤ 07 ② 08 ②

0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뒤에는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03 보고서는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관찰, 실험, 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정리한 글이다. 너비아니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나)는 너비아니와 관련한 기록과 너비아니의 유래가 담겨 있는 자료로, 주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너비아니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05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기록해 두고,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06 (다)에 따르면 너비아니의 양념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념은 간장으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양념과 다르게 맵지 않아 어린이들도 잘 먹을 수 있고, 된장 양념에 비해 향이 강하지 않아 대중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만하다고 하였다.

07 서연이 추가로 찾은 자료인 너비아니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영상 자료는 (나)의 너비아니의 재료와 요리 순서를 설명한 내용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너비아니를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8 서연은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너비아니를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

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서연이 고쳐쓰기 단계에서 삭제한 것이다.

대단원 평가

170~177쪽

- 01 ③ 02 ⑤ 03 ① 04 더 긴 시간 동안 더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해야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05 ④ 06 ① 07 ④
08 ④ 09 ① 10 ②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⑤
18 농사꾼에게야 때맞춰 비가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었어? 19 ③ 20 ⑤ 21 ⑤ 22 ①
23 ⑤ 24 ② 25 ③ 26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7 ⑤ 28 ①

01 (나)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자극만 추구하게 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파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주로 즐거움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져서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전보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파민이 분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2 (나)에서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는 단순한 조작으로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도파민은 주로 즐거움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생기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는 세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 주는 도구로,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걷느라 주변을 미처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질병을 얻기도 한다고 하였다.

03 (가)에서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이 성인들의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4 (나)에서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지므로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전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

움을 얻으려면 더 긴 시간 동안 더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처음과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주장과 근거,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06 (가)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나)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 역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을 일으켜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가)~(다)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7 (다)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데, 잠이 부족하면 깨어 있는 동안 학습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기 기억으로 머물다 사라지게 되므로 기억력이 떨어지며, 창의력 또한 저하되어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8 (나)에서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약 7,000리터로,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옷은 약 1,000억 벌이고, 그중 3분의 1인 약 330억 벌은 같은 해에 버려진다고 하였다.

② (가)에 따르면 패스트 패션과 패스트 푸드는 빠르게 생산되고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빠르게 파괴한다는 하였지만, 패스트 푸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 따르면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달리 패스트 패션 업체는 1~2주 만에 새로운 옷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 따르면 염색 가공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물에 섞여 배출되고,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09 (나)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나)의 중심 문장은 ㉠이다.

10 버려진 옷이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부가적인 내용으로, 글의 중심 내용인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재구성하기' 규칙이 아닌 '삭제하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11 (가)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어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내용으로,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에 해당한다. (나)와 (다)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다)는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라)는 본론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12 (가)에 따르면 우리가 입을 옷의 원단 중 합성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합성 섬유를 제조할 때에는 면섬유를 제조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되는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입을 옷의 원단 중 70% 이상이 면섬유라고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3 이 글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이 의류 업계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변화해서 소비자도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시태그는 적절하지 않다.

14 ㄱ. '옛날', '나무 그늘 아래'라는 막연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스님과 농부가 내기를 벌이는 흥미롭고 해학적인 성격의 이야기로,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는 '소내기'에서 지금의 '소나기'가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ㄷ. '~ 다녔지.', '~ 쉬게 되었단다.', '~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 아냐, 그제.' 등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구어체로 서술된 것으로 보아 구전되다가 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스님'과 '농부 한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며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 ㄷ. 이 이야기와 관련된 증거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15 무더운 여름날, 스님이 동냥을 하러 다니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어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농부 한 사람이 그 나무 그늘로 와서 함께 쉬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님이 비가 온다는 것을 농부에게 알려 주기 위해 일부러 농부를 찾아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6 스님은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자신의 옷(장삼)을 만져 보니 몹시 눅눅해서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7 이 이야기 글의 끝 부분에서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다고 요즈음에는 '소나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는 '이슬비'이다.
②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는 '역수'이다.
③ '별이 나 있는 날에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는 '여우비'이다.
④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내리는 비'는 '장마'이다.

18 농부는 스님에게 "곧 모를 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농부가 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때맞춰 비가 오자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비가 오자 농부가 기뻐한 까닭을 찾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이 글에서 비가 오자 농부가 기뻐한 까닭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찾아 서술하였다.	☐

19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한다.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20 수집한 자료의 활용 여부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상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주제와 연관이 없다면 해당 자료는 활용할 수 없다.

2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에서는 과장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가)는 이 글의 '처음' 부분으로, '처음' 부분에서 '방송에 보도된 너비아니'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 '방송에 보도된 너비아니'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나)에서 너비아니가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의 하나로 추측된다고 하였으나, 너비아니가 포함된 궁중 음식을 맞볼 수 있는 체험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궁중 음식을 맞볼 수 있는 체험'에 관한 기사는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글을 쓸 때 활용하지 않은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 ○○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라)에서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④ (나)에서 너비아니라는 이름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24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은은한 전통의 맛, 너도 아니? 너비아니'라고 제목을 수정한 것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함이다.

25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은 글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너비아니를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너비아니 만드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다.

26 제시된 초고에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가 빠져 있다.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의 초고에 출처가 빠져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27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가져올 때에는 내용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설명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③, ④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며, 명료하게 표현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다.

28 과학 실험을 할 때 같은 주제를 다룬 실험 보고서를 참고하면, 각 단계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78~179쪽

01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만 치우치게 발달하는 반면, 독서를 많이 하면 뇌의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달한다. **02**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3** 다양한 정보를(내용을) 담은 지도 **04** 글의 '처음' 부분에서 너비아니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다. **05**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06** 오늘 저녁에는 너비아니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01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독자의 읽기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에서 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독서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과 독서할 때의 장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만 치우치게 발달하는 반면, 독서를 하면 뇌의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달한다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야 한다.

평가 기준

- 상 읽기 목적에 맞게 (가)의 내용을 바르게 요약하였다.
- 중 (가)의 내용을 바르게 요약하였다.
- 하 읽기 목적만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02 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약 7,000리터로,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옷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낭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나)의 문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효과를 서술하였다.
- 하 한 문장으로 썼으나, 효과를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03 (다)는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일부이다. ㉠에는 이어지는 내용을 요약하는 중심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다)에서 지도는 담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다양한 정보를(내용을) 담은 지도'라는 중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 상 지도가 다양한 정보를(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4어절로 서술하였다.
- 중 지도가 다양한 정보를(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4어절로 쓰지 못하였다.
- 하 4어절로 썼으나, 지도가 다양한 정보를(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04 서연이 찾은 자료 (가)는 너비아니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 결과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너비아니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까닭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글의 '처음' 부분에서 너비아니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까닭과 관련지어 활용한다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글의 '처음' 부분에서 너비아니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까닭과 관련지어 활용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않았다.
- 하 자료 (가)의 활용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05 (가)의 내용을 도표로 시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설문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

- 상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었다는 것과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중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었다는 것과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내용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 하 내용을 시각화할 때의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6 너비아니를 먹어 보자는 권유의 내용을 의문형의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면 '너비아니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와 같이 쓸 수 있다.

28 정답과 해설

평가 기준

- 상 권유의 내용을 의문형의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권유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의문형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의문형의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나, 권유의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80~181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③

1 (가)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설명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나)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글이므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글을 요약해야 한다. (다)는 여름에 갑자기 내리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나기'로 부르게 된 유래에 관한 이야기 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02 (나)의 중심 내용을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첫 번째 문장은 패스트 패션 업체가 끊임없이 옷을 생산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처음' 부분에서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까닭을 밝혀야 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너비아니의 역사,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 너비아니의 가치, 너비아니의 변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끝' 부분에서 너비아니 소개를 요약하고, 너비아니를 먹어 보자는 권유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와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나)-(가)-(바)-(마)-(라)-(다)'의 순서가 적절하다.

04 (다)는 '끝'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너비아니 소개를 요약하고, 너비아니를 먹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문단에 해당한다.

3 세상을 담는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01 품사로 빚어낸 세상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6~187쪽

- 1 (1) 품사 (2) 형태, 기능, 의미 2 (1) X (2) X (3) O
 3 ③ 4 ㉠ 느낌 ㉡ 대답 5 (1) O (2) X (3) X
 6 ⑤

1 (1)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를 의미한다.

(2)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형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기능),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1)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는 품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관계언, 즉 조사이다.

(2) 수사(修辭)는 체언의 한 종류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며,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수식어 중 관형사에 관한 설명이다.

(3)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3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4 감탄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 ㉡에는 느낌, 대답 등이 들어갈 수 있다.

5 (1) 용언은 문장에 들어갈 때 형태가 변하는데,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2) 용언의 어간에 어미 '-다'가 붙은 것을 용언의 기본형이라고 한다.

(3) '았다'에서 '-다'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어미라고 한다.

6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을 하는 품사는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이다. 그중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 1 아름답다 2 ⑤ 3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4 ③ 5 (1) O (2) X (3) X 6 ④ 7 달리다, 잡다
 8 맑고, 푸르다 9 (1) O (2) X 10 ① 11 나는
 이번 방학에 가족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다. 12 ⑤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 형태
 가 변하지 않는 단어, 수식어, 부사 ㉡: 형태가 변하는 단어, 용언,
 동사 18 체언: '행복', '우리', '결', 용언: '왔다', 관계언: '이',
 '으로', 수식어: '드디어', 독립언: '아'로 분류할 수 있다. 19 ④

1 '아름답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등으로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고, '우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대명사이다.

2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관계언, 수식어,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보기>의 '하늘'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는 체언인 '나뭇잎'과 '바다'이다.

오답 풀이 ① '았다'는 용언, '바다'는 체언이다.

② '작다'와 '먹다'는 모두 용언이다.

③ '았다'는 용언, '너무'는 수식어이다.

④ '기쁘다'는 용언, '훨씬'은 수식어이다.

⑤ '나뭇잎'은 체언, '너무'는 수식어이다.

3 <보기>에 제시된 단어 '기쁘다'와 '작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4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를, '우정'은 '친구 사이의 정.'을 뜻한다. 이 단어들은 모두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행복', ② '평화', ④ '우정'만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꽃', '나무', '음악', '책', '구름', '솜사탕', '강아지', '집', '자동차'는 모두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5 (1)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 즉, 명사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품사이다.

(2)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체언에 속한다.

(3) '이것, 너희, 무엇'은 대명사이지만, '작품'은 '만든 물품.'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6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오답 풀이 ①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②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③ 수사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는 구체 명사이다.

7 '달리다'와 '잡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맑다'와 '빠르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8 '하늘이 맑고 푸르다.'에서 '하늘'은 명사, '이'는 조사, '맑고'는 형용사, '푸르다'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형용사는 '맑고'와 '푸르다'이다.

9 (1) '-어라/-아라'는 어떠한 행동을 시키는 명령형 표현으로 동사의 어간과 결합할 수 있다.

(2) '-는다/-니다'는 현재의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어미로 동사의 어간과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형용사의 어간과는 결합할 수 없다.

10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이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①의 '따뜻하다'는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라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11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말의 뜻을 더해 주므로 대명사 '나' 뒤에 붙어 있는 '는', 명사 '방학' 뒤에 붙어 있는 '에', 명사 '가족' 뒤에 붙어 있는 '과', 명사 '강릉' 뒤에 붙어 있는 '으로', 명사 '여행' 뒤에 붙어 있는 '을'이 조사이다.

12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에 속한다. 수식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수식어 없이도 의미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② 수식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꾸며 주는 대상에 따라 여러 번 쓰일 수 있다.

③, ④ 수식어 중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13 부사 '잘'은 뒤에 오는 동사 '기르는구나'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너'는 대명사로,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② '하나'는 수사로, 식물의 수량을 나타낸다.

③ '도'는 조사로, 수사 '하나' 뒤에 붙어 말의 뜻을 더해 준다.

④ '여러'는 관형사로, 명사 '식물'을 꾸며 준다.

14 '새'는 뒤에 오는 명사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뒤에 오는 동사 '기어간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뒤에 오는 동사 '존경한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뒤에 오는 형용사 '멋진'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15 '윤서야'는 사람의 이름인 명사 '윤서'에 조사 '야'가 붙어 부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경우로 감탄사가 아니다.

16 '가만히'는 뒤에 오는 동사 '들여다보아도'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7 '천천히'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뒤에 있는 동사

‘기어가는’을 수식하므로 수식언 중 부사에 해당한다. ‘기어가는’의 기본형은 ‘기어가다’로 문장에서 사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주체의 움직임을 서술하므로 용언 중 동사에 해당한다.

18 단어는 기능을 기준으로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	행복	이	드디어	우리	결	으로	왔다
독립언	체언	관계언	수식언	체언	체언	관계언	용언
감탄사	명사	조사	부사	대명사	명사	조사	동사

19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여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글의 내용이 간결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15쪽

- 1** (1) 감탄사 (2) 용언 (3) 동사 **2** (1) 연필: 명사 (2) 그녀: 대명사 (3) 여러: 관형사 (4) 어머니: 감탄사 (5) 깜짝: 부사
3 ③

- 1** (1)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쓰이는 품사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2) 부사는 수식언에 속하여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준다.
(3) 문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며, 그중 명령형 혹은 청유형 표현이 가능한 품사는 동사이다.

- 2** (1) ‘연필’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2) ‘그녀’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여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3) ‘여러’는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다는 뜻으로, ‘강아지 여러 마리, 여러 명’처럼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이다.
(4)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쓰는 말로, ‘어머! 이게 누구야?’처럼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며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5) ‘깜짝’은 갑자기 놀라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깜짝 놀라다’처럼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3 주어진 문장의 단어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그	는	음악	을	자주	듣는다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소단원 마무리

216~217쪽

- 1** ③ **2** ① **3** ④ **4** ④ **5** ⑤ **6** ⑤

1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외에도 조사 ‘이다’가 있다.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오답 풀이 ①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를 뜻한다.

② 품사는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총 9개로 분류할 수 있다.

④ 품사를 문장에서 하는 역할, 즉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⑤ 단어의 분류 기준 중 ‘의미’는 각 단어의 개별적인 뜻이 아닌,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지니는 뜻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첫째’는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를, ‘둘’은 하나에 하나를 더한 수를 나타내는 말로, 개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라는 점에서 ‘수사’로 묶인다.

2 ① ‘하늘’과 ‘교과서’는 명사, ‘너무’는 부사, ‘너희’는 대명사이다. ① ‘빨강다’와 ‘짧다’는 형용사, ‘달리다’와 ‘구르다’는 동사이다. ①의 명사, 부사, 대명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품사이고, ①의 형용사와 동사는 형태가 변하는 품사이므로 ①과 ①은 ‘형태’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①은 용언으로 묶을 수 있으나, ①은 ‘너무’라는 부사가 있어 체언으로 묶을 수 없으므로 기능이 분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③ ①은 ‘하늘’과 ‘교과서’ 둘만이 명사로 묶일 수 있으며, ①은 형용사인 ‘빨강다, 길다’와 동사인 ‘달리다, 구르다’로 나누어지므로 의미가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구체성’은 명사를 더 자세히 분류할 때 구체적인 명사인지를 추상적인 명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①과 ①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품사는 조사이므로, ‘독립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과 ①에 조사가 있어야 한다. ①과 ①에는 조사가 없으므로 독립성이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3 ‘넷째’의 뜻 중에는 ‘순수가 네 번째인 차례’라는 뜻을 가진 수사가 있으므로, 수사의 예로 ‘넷째’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그녀’는 ‘주로 글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여자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므로 대명사이다.

②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③ ‘좋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⑤ ‘를’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뜻을 지닌 조사이다.

4 ‘먹다’와 ‘뛰다’는 동사이고, ‘빠르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산', '강', '책상'은 모두 명사이다.

② '너희', '이곳', '그것'은 모두 대명사이다.

③ '또', '벌써', '너무'는 모두 부사이다.

⑤ '까지', '에게', '부터'는 모두 조사이다.

5 용언은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6 조사는 용언이 아닌 체언 뒤에 주로 붙어서 말의 뜻을 더해 준다.

문해력 키우기

219~221쪽

1단계 | 1 자격 2 수량 3 거창하다 4 요란하다

5 동사 6 청유 7 얽매이다 8 성질

9 빗대다 10 애타다 11 관형사 12 분석하다

13 조사 14 구체적 15 대명사

2단계 | 1 기능 2 수사 3 쓰임 4 품사

5 기본형 6 비로소 7 예외적 8 조력자

9 관련짓다 10 고려하다 11 구별하다

12 떠올리다 13 분리되다 14 생생하다

3단계 | 1 종류 2 들여다보았다 3 고려해야

4 구실 5 관계 6 예 그는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낸다.

7 예 음악가는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8 예 그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존재한다. 9 예 나는 흰색 셔츠와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 10 예 식물이 잘 자라려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1단계

1 **오답 풀이** 주체: 문장 내에서 술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술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2 **오답 풀이** 순서: 무슨 일을 행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차례.

3 **오답 풀이** 사소하다: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다.

4 **오답 풀이** 침착하다: 행동이 들뜨지 아니하고 차분하다.

5 **오답 풀이**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6 **오답 풀이** 작용: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7 **오답 풀이** 매끄럽다: 글이나 말에 조리가 있고 거침이 없다.

8 **오답 풀이** 상태: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9 **오답 풀이** 대신하다: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다.

10 **오답 풀이** 독립되다: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되다.

11 **오답 풀이**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12 **오답 풀이** 분류하다: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

13 **오답 풀이** 감탄사: 품사의 하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의 부류이다.

14 **오답 풀이** 추상적: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15 **오답 풀이**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소단원 평가

222~225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① 08 ③ 09 ① 10 ⑤

11 ⑤ 12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13 '셋째'는 뒤의 명사 '아들'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셋'은 조사 '을'과 결합한 '수사'이다.

14 ④ 15 ②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⑤ 21 ③ 22 ② 23 ①

24 ① 25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며, 다른 말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더해주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26 ③ 27 '나는 떡볶이만 먹을래.'는 조사 '만'을 사용하여 떡볶이 외의 다른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하지만 '나는 떡볶이부터 먹을래.'는 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떡볶이를 먼저 먹고 다른 음식도 먹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01 관계언은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문장에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이며 홀로 쓰일 수 없다.

02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은 기능, ㉡은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은 문장에서의 활용 여부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03 '우리'는 대명사, '밥'은 명사, '첫째'는 수사로, 모두 체언이다. 체언은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홀로 쓰일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의 기능이 있는 것은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이다.

②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며, 예외적으로 조사 '이다'도 형태가 변한다.

③ 문장에서 주로 부사의 꾸밈을 받는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이다. 체언은 주로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다.

④ '첫째'는 수사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지만 '우리'와 '밥'은 수사가 아니므로 공통점이 될 수 없다.

04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는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과연'은 부사이므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05 '걱정, 우산, 가방, 손'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6 '이것, 그것, 너, 거기'는 모두 대명사이고, '나이'는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명사이다.

07 '느', '에게'는 조사로,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오답 풀이 ②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인 용언이다.

③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활용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이며, 예외적으로 조사 '이다'도 활용한다.

④ 조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이다.

⑤ '느'와 '에게'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을 때 주어가 '나'에서 '친구들'로 바뀌므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08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에서 쓰일 때 '이니, 이고'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09 용언은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에 어미 '-다'가 붙은 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용언의 활용은 용언의 기능이 변하는 것이 아닌,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다. 활용을 한다고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기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③ '빠르다'는 형용사이고, '빨리'는 부사이므로 활용으로 볼 수 없다. '빠르다'의 어간은 '빠르-'인데, '빨리'는 '빠르-'에 어미가 붙은 형태가 아니다.

④, ⑤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10 동사는 활용을 할 때 어미 '-느/-다', '-어라/-아라', '-자'와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다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어미 '-느다'가 결합할 수 없다.

11 '모름지기'는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② ① '데굴데굴'은 뒤에 오는 동사 '굴러간다'를 꾸며 준다. ③, ④ ③ '매우'는 뒤에 오는 부사 '천천히'를 꾸며 준다.

12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번쩍'과 '깜짝'은 각각 뒤에 오는 동사 '들자'와 형용사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밑줄 친 단어들이 수식언임을 밝혔다.	☐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수식언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

13 '셋째'는 뒤에 오는 명사 '아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이 문장에서 '셋째'는 관형사이므로 조사가 붙을 수 없다.

평가 기준	확인 ☒
'셋째'가 관형사임을 밝혀 서술하였다.	☐
'셋'이 수사임을 밝혀 서술하였다.	☐
'셋째'에는 '셋'과 달리 조사가 붙을 수 없음을 서술하였다.	☐

14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성분에 얹매이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는 독립언인 감탄사이다.

15 형태가 바뀌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고,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특별하고'는 형용사 '특별하다'의 활용형이며, '거창한'은 형용사 '거창하다'의 활용형이다.

16 '느'는 대명사 '나'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 즉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야'는 감탄사로, 독립언이다.

② '나'는 대명사로, 체언이다.

④ '행복한'은 앞에 오는 부사 '정말'의 꾸밈을 받는 형용사로, 용언이다.

⑤ '사람이구나'는 명사 '사람'과 조사 '이다'가 활용한 '이구나'가 합쳐진 말이다.

17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사이다. '나는 그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의 '그'는 내가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 나타내므로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그'는 대명사와 형태는 같지만 뒤에 오는 명사 '장소'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다섯'은 수사와 형태는 같지만 뒤에 오는 명사 '명'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④ '시간'은 앞에 위치한 관형사 '두'의 꾸밈을 받는 명사이다.

⑤ '두'는 뒤에 오는 명사 '번째'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8 ㉠, ㉡은 '민재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은 '민재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미술실에 걸어 놓은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은 '미술실에 걸어 놓은 그림 또는 그림을 미술실에 걸어 놓는 행동'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은 민재를 의미하며, 뒤에 나오는 자신이 의미하는 대상이 영하이다.

19 ㉠은 어간 '재미있-'에 어미 '-게'가 붙은 형용사이다. '재미있게, 재미있고, 재미있으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본형은 '재미있다'이다. ㉡은 어간 '놀-'에 어미 '-다'가 붙은 동사이다. '놀자, 놀고, 노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본형은 '놀다'이다.

20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에는 조사가 아닌 '문장 전체'가 들어가야 한다.

21 부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매우'는 부사 '열심히'를 꾸며 준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이다.
 ② '한'은 뒤에 오는 명사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④ '열심히'는 뒤에 오는 동사 '달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달렸다'는 문장에서 '나'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동사이다.

22 '잘'은 뒤에 오는 동사 '기른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나머지는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① '새'는 뒤에 오는 명사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 '노래'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④ '옛'은 뒤에 오는 명사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⑤ '어떤'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3 ㉠ '그'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고, ㉡ '그'는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4 '세'는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수사이다.

- 오답 풀이** ② '삼'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③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④ '셋째'는 달리기 시험에서 들어 온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⑤ '셋'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25 단어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그러나 체언과 쉽게 분리될 수 있고, 단어의 정의 중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에 부합한다. 따라서 조사가 단어로 인정 받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조사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
단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조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까닭을 서술하였다.	☐

26 조사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말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명사 '정답' 뒤에 오는 '을', 대명사 '이곳' 뒤에 오는 '의', 명사 '친구' 뒤에 오는 '를'이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는 총 3개이다.

정답을 모두 맞히면 이곳의 친구를 풀어 줄게.

27 조사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등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는 떡볶이만 먹올래.'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
'나는 떡볶이부터 먹올래.'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
'만'과 '부터'가 조사임을 밝혔다.	☐

34 정답과 해설

02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소단원 한눈에 보기

228쪽

- 1** (1) X (2) O (3) X **2** (1) 누리집 (2) 온라인 대화방
3 ②

1 (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2) 상호 작용적 매체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녔다.
 (3)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작용적 매체는 누리집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대화방은 생각, 의견, 관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2 (1)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며,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은 누리집이다.
 (2) 온라인 대화방은 온라인에서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비교적 생각이나 의견, 관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3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의사소통 목적에 적합한지, 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공적인 맥락인지 사적인 맥락인지, 의사소통의 참여자나 수용자를 고려하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흥미는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 응용 문제

232-239쪽

- 1** (1) X (2) X **2** (1) 그림말 (2) 시각 (3) 실시간
3 (1) 사진 (2) 댓글 **4** (1) O (2) O **5** (1) O
 (2) X (3) O **6** ② **7** (1) O (2) O (3) X
8 상호 작용적 매체 **9** ④ **10** ① **11** ④
12 (1) X (2) X **13** ④ **14**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다. **15** ④

1 (1) 정민이 수아에게 'ㅠㅠ'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강아지를 잃어버린 속상한 마음을 눈물이 흐르는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혼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본 위치를 공유해 준 수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에는 그림말을 사용하였다.
 (2) 수아는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강아지가 아닌, 혼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지도를 연결하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민에게 공유하였다.

2 (1)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그림말이나 자음, 모음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2)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한 시각이 기록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한 시각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대화방을 사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3 (1) 정민은 사람들이 콩이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콩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장 올렸다.

(2) 정민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보고 은빛, 현호가 댓글을 남겨 주었다.

4 (1)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대상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5 (1) 게시 글 상단에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수, 추천 수 등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2) 정민이 찾아본 누리집의 게시 글은 강아지 쉼터 내 보호실을 청소하고 관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기견 구조 및 입양에 관해 해당 게시 글에서는 알 수 없다.

(3) 게시 글에서 봉사 시간을 매주 토요일 오전 열시부터 오후 두시까지라고 하였다.

6 정민이 찾아본 누리집에서 정민은 봉사 활동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 댓글로 문의를 남겼다. 이때 정민은 인증을 받고 댓글을 남긴 것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댓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7 (1) 정민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목격했는지 물어보기 위해 친구와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정민은 강아지를 찾는 데에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강아지를 찾는 게시물을 올렸다.

(3) 정민은 강아지를 잃어버린 일을 계기로 유기견 보호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관련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유기견 보호 단체의 공식 누리집을 찾아보았다.

8 온라인 대화방,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누리집은 모두 정보의 수용과 생산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9 (가)는 누리집, (나)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고, 온라인 대화방은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 의견, 관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온라인 대화방의 주된 소통 상대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다.

오답 풀이 ① (가)를 보면 행사 안내문이 문서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누리집에는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공지 글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민주가 필통 만들기 행사 공지 글이 담긴 링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대화방에 특정 링크를 첨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필통 만들기 행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대화방은 주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10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학교의 행사 일정은 공적인 정보이며, 전교생이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야 하므로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후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사적인 상황이므로 온라인 대화방이나 개인 계정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모둠별 과제는 그 모둠만의 일이므로 사적인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 단체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음식점에 대한 후기는 개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담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친한 친구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해도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온라인 대화방, 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여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친구에게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온라인 대화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2 (1) (가)는 ○반이 시끄럽다고 지적하는 친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니라, ○반이 시끄러워서 불만을 가진 친구가 올린 글이다.

(2) (나)는 하준과 소연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준이 직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13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특정 사람을 언급할 때에는 ‘@’ 기호를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가)는 누리집이다.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이므로 격식을 갖추어서 써야 한다. ‘모라고’와 같이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나, ‘넌’, ‘섬’과 같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⑤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생각, 의견, 관점 등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매체이므로 소연과 싸운 개인적인 일을 올리는 것은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14 (가)의 누리집과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글을 올리는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15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은 사적인 일이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동생과 다툼 이야기는 사적인 일이므로 주로 공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학급 친구 모두에게 학급의 준비물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친구와의 여행 사진과 같은 사적인 내용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을 활용하거나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홍보 자료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는 목적을 가지므로 줄임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식을 갖추어 쓰는 것이 좋다.

1 ③ 2 ① 3 (1) X (2) ○ 4 ①

1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을 때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누리집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매체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할 때는 소통의 맥락과 목적, 소통 공간,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통이 이루어진 시기가 최근인지 아닌지는 매체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 상황에 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2)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의 맥락과 목적, 소통 공간,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통의 맥락을 살펴볼 때에는 공적인 맥락인지, 사적인 맥락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4 매체를 활용할 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②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검증된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소통의 맥락, 목적, 소통 공간과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달해야 한다.

③ 친구의 사진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올릴 때에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은 들리지 않더라도 올려서는 안 된다.

⑤ 개인적으로 나는 대화에서 재미있었던 내용은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마무리

242~243쪽

1 ④ 2 ② 3 (1) ○ (2) X (3) ○ 4 ④
5 ② 6 (1) ○ (2) X (3) X

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2 텔레비전은 방송을 통해 매체 자료가 일방향으로 전달되므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볼 수 없다.

3 (1)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체로 주로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공간이다.

(2)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이다.

(3) 누리집에 게시된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4 공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는 매체는 누리집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며,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다.

5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문자와 함께 그림으로 된 그림말을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온라인 대화방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수도 있으나 주로 사진이나 영상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③ 온라인 대화방은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하게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④ 전달하려는 내용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각종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⑤ 생산자의 설정에 따라 게시 글마다 접근할 수 있는 독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블로그의 특징이다.

6 (1)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매체인지 고려해야 한다.

(2), (3) 정보의 신속성이나 정보의 양,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흥미는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245~247쪽

1단계 | 1 공적 2 별도 3 기반 4 구축하다
5 선정하다 6 개방적 7 현상 8 공유하다
9 어긋나다 10 제한하다 11 수칙 12 개선
13 줄임말 14 조회 15 계기

2단계 | 1 다수 2 매체 3 범위 4 종목별
5 관심사 6 쌍방향 7 누리집 8 되도록
9 제대로 10 상호작용 11 문의하다
12 실현하다 13 올바르다 14 자원봉사자

3단계 | 1 연결하는 2 활용한다 3 소통
4 양상 5 홍보 6 예 곳곳에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7 예 엄격한 규칙으로 그의 행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다. 8 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9 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축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10 예 나는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목격했다.

1단계

1 오답 풀이 사적: 개인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2 오답 풀이 특성: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 3 **오답 풀이** 맥락: 사물 등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 4 **오답 풀이** 특수하다: 특별히 다르다.
- 5 **오답 풀이** 적합하다: 일이나 조건 등에 꼭 알맞다.
- 6 **오답 풀이** 전통적: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또는 그런 것.
- 7 **오답 풀이** 성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 8 **오답 풀이** 전달하다: 지시, 명령, 물품 등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하다.
- 9 **오답 풀이** 점검하다: 낱낱이 검사하다.
- 10 **오답 풀이** 검색하다: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낸다.
- 11 **오답 풀이**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 12 **오답 풀이** 수용: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13 **오답 풀이** 맞춤법: 어떤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 또는 단어별로 굳어진 표기 관습.
- 14 **오답 풀이** 모집: 사람이나 작품, 물품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
- 15 **오답 풀이** 계정: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 의 체계. 문자나 숫자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단원 평가

248~249쪽

- 01 ② 02 감정이나 느낌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다. 03 ③ 04 해시태그, 해당 기호 뒤에 특정 단어나 문구를 붙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05 (가)는 누리집, (나)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06 ④
- 07 ② 08 ④

- 01 수아가 링크를 통해 지도를 첨부하여 혼자 돌아다니는 강아지의 위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며, '행복 공원'이라는 문구를 붙여서 접근성을 높인 것은 아니다.
- 02 그림말은 감정이나 느낌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강조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과 유사한 소통 환경을 조성해 주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그림말의 기능 한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03 정민은 '@' 기호 뒤에 '강아지를_찾습니다'라는 특정 계정을 연결하였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04 해시태그는 언급된 특정 단어나 문구를 묶어 주는 역할을 하여, 의사소통의 수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가 기준	확인 ☒
해시태그의 명칭을 밝혔다.	☐
해시태그의 기능을 서술하였다.	☐

05 (가)는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라는 공식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글이며, 상단에 '게시판 > 학생 마당'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활용한 매체는 누리집이다. (나)는 상단에 '단체 대화방'이라고 쓰여 있으며, 그림말을 사용하거나 'ㅎㅎ'처럼 자음만을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활용한 매체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의 자료에서 활용한 매체의 종류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나)의 자료에서 활용한 매체의 종류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06 (가)는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를 공지하여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 글이다. 댓글 기능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회원 가입 후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입력란이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민주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필통 만들기 행사와 관련된 링크를 첨부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대화방의 내용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된다. ③ '나'가 행사에 같이 참여하자는 민주의 의견에 '좋아!'라고 답하며 동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댓글 기능이 아닌 대화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④ 행복 중학교 게시판의 필통 만들기 행사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나, '민주'와 '유민'이라는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있으므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유민은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오, 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8 (가)와 (나)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단원 평가

254~259쪽

- 01 ③ 02 ③ 03 ① 04 ③
 05 ㉠ 문 앞, ㉡ 손님, ㉢ 청바지 06 ①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예 새 12 ②
 13 ④ 14 ⑤ 15 ① 16 ② 17 ④
 18 ② 19 '온갖'은 관형사인데 용언 '찾아왔다'를 수식하고 있어 어색하다. 따라서 '비로소 찾아왔다.', '마침내 찾아왔다.' 등으로 고쳐야 한다. 20 ① 21 ⑤ 22 ①
 23 'ㅎㅎ'은 마음만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의 온라인 대화방이 (나)의 누리집에 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⑤
 25 ④ 26 ⑤ 27 ② 28 (가)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나)는 사적인 맥락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29 ④
 30 ④ 31 ④

01 품사란 문장에서 쓰일 때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이다.

오답 풀이 ① 품사는 문장이 아닌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이다.
 ② 우리말 중 단어를 품사로 나눌 수 있으며,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모두 9개이다.
 ④ 단어의 무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 품사이므로, 품사에 속하지 않는 단어는 없다.
 ⑤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를 말한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므로 어절 단위로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다.'를 어절 단위로 파악할 경우, '꽃이'와 '아름답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꽃이'는 명사 '꽃'과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품사를 어절 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 조사 '이다'이다. '먹다', '흔들리다'는 동사이며, '빠르다'는 형용사이므로 세 단어 모두 형태가 변한다.

오답 풀이 ① '책', '책상', '컴퓨터'는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명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② '가장'은 부사 혹은 명사이고, '성격'은 명사, '착하다'는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착하다'뿐이다.
 ④ '우리'는 대명사 혹은 명사이고, '내리다'는 동사 혹은 형용사이며, '보슬보슬'은 부사이다.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내리다'뿐이다.
 ⑤ '한글', '우리말'은 명사, '존경하다'는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존경하다'뿐이다.

03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 수식언은 관형사와 부사, 관계언은 조

사, 독립언은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①의 문장에서 '우리'는 대명사이므로 체언이다.

오답 풀이 ② '이다'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③ '빨간'은 형용사 '빨갈다'의 활용형이므로 용언이다.
 ④ '아'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므로 독립언이다.
 ⑤ '처럼'은 명사 '치타' 뒤에 붙어서 쓰이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04 ㉢ '두'는 뒤에 오는 명사 '번'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 ㉡, ㉣은 뒤에 조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체언이며, 모두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05 ㉠: 손님이 '저기'에 걸려 있는 옷을 입어 봐도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점원이 '문 앞'에 있는 청바지요? 하고 되물었으므로 ㉠은 '문 앞'을 가리킨다.
 ㉡: '저'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손님이 말을 하였으므로 ㉡은 '손님'을 가리킨다.
 ㉢: 손님이 청바지를 입어 본 후 점원에게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점원이 '그것'은 3만 원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은 손님이 입어 본 '청바지'를 가리킨다.

06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을 하므로, 활용 여부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므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③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와 결합할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므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④ 현재형 어미 '-는다/-는다'와 결합할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므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⑤ 동사는 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주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07 사람,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사이다. ㉣의 '친구'는 대명사가 아닌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은 명사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② '한'은 관형사로,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③ '을'은 조사로,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④ '입고'는 동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08 '빨간'은 형용사, '이다'는 조사, '뛰었다'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②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품사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는 조사로, '빨간'과 '뛰었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문장에서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품사는 동사로, '빨간'과 '이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09 ‘저’는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③ ‘오느라’는 동사로, 기본형은 ‘오다’이다. ‘오고, 오니, 오면, 온다, 왔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④ ‘아이고’는 감탄사로, 손녀가 와서 반가운 할머니의 감정을 나타낸다.
 ⑤ ‘만이니’는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 ‘만’ 뒤에 조사 ‘이다’가 붙은 것이다.

10 관형사는 문장에서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 주고, 부사는 문장에서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③의 ‘살랑살랑’은 부사로, 동사 ‘흔들었다’를 꾸며 준다.

- 오답 풀이** ① ‘새’는 관형사로, 명사 ‘옷’을 꾸며 준다.
 ② ‘어떤’은 관형사로, 명사 ‘날씨’를 꾸며 준다.
 ④ ‘헌’은 관형사로, 명사 ‘신발’을 꾸며 준다.
 ⑤ ‘옛’은 관형사로, 명사 ‘추억’을 꾸며 준다.

11 형태가 변하지 않고, ‘책’을 꾸며 주는 단어로는 관형사가 적절하다. 그러므로 ‘새, 현, 옛, 여러’ 등을 넣을 수 있다. 이때 ‘아름다운’이나 ‘재미있는’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용언의 활용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여보세요’는 ‘앗’과 같은 감탄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쓰이므로 생략을 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13 ㉠과 ㉡은 조사 ‘가’와 ‘를’의 위치가 바뀐 문장이다. ㉠은 조사 ‘가’가 ‘고양이’ 뒤에 위치하고, ‘를’이 ‘쥐’ 뒤에 위치하여 ‘고양이’가 주어, ‘쥐’가 목적어가 된다. ㉡은 조사 ‘가’가 ‘쥐’ 뒤에 위치하고 ‘를’이 ‘고양이’ 뒤에 위치하여 ‘쥐’가 주어, ‘고양이’가 목적어가 된다. ‘가’와 ‘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지므로 ㉠과 ㉡을 통해 조사는 주어, 목적어 등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 대명사를 사용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글을 간결하게 쓸 수 있다.

15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에는 감탄사, 대명사, 명사, 부사가 쓰였으며, 동사는 쓰이지 않았다.

아	나	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구나
감탄사	대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명사	조사

16 ‘행복은 비로소 우리 곁으로 온다.’에서 ‘비로소’는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결’은 명사이다.
 ③ ‘우리’는 대명사이다.
 ④ ‘온다’는 동사 ‘오다’의 활용형이다.
 ⑤ ‘은’은 ‘행복’, ‘으로’는 ‘결’ 뒤에 붙은 조사이다.

17 ㉠ ‘어떤’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사소한’은 ‘사소하다’가 활용한 형태이므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18 활용하지 않는 품사 중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거창’은 형용사 ‘거창하다’의 어근으로 체언으로 볼 수 없다.

19 ‘온갖’은 관형사로 문장에서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데, ㉠에서는 용언인 ‘찾아왔다’를 수식하고 있어 어색한 것이다. 따라서 ‘온갖’ 대신 ‘비로소’, ‘마침내’ 등의 부사를 사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찾았다.	☐
어색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바르게 고쳐서 서술하였다.	☐

20 (가)에서 사용한 매체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나)에서 사용한 매체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비해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다.

- 오답 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문자나 사진 등의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수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면 다수의 사람들과 동시에 소통할 수도 있다.

21 온라인 대화방은 상호 작용적 매체이므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없다.

22 (나)에서 ‘♡’ 부분에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남긴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이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기에 유용한 매체는 (가)이다.
 ③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④ 특정 단어나 문구를 붙여 게시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때 쓰는 기호는 ‘#’이다.
 ⑤ 특정 사람이나 단체 등의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때 쓰는 기호는 ‘@’이다.

23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누리집이다. (나)는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가)는 (나)와 달리 생각이나 의견, 관점 등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ㅎㅎ’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
(가) 매체의 특성을 (나) 매체와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24 조회 수나 추천 수는 게시 글을 작성한 사람이 아닌, 게시 글에 접근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낸다.

25 누리집은 공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이므로 개인 간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의 학교 행사 일정을 알고 싶거나, 현혈 전 유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

26 강아지 쉼터 자원봉사자 모집 글은 공적인 성격의 내용이다.

27 (가)는 ○반이 소란스럽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쓴 글이므로 공적인 공간인 누리집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가)는 누리집이므로 공적인 맥락으로,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므로 사적인 맥락으로 주로 활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공적인 맥락일 때 주로 (가)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사적인 맥락일 때 주로 (나)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29 (나)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개인적인 내용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대화방의 일대일 대화 기능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30 (가)와 (나) 모두 댓글을 통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1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나 수용자를 고려하였는지, 소통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260~261쪽

01 품사는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이다.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02 ‘얹아서’는 어간 ‘얹-’과 어미 ‘-아서’가 결합한 형용사이며, 기본형 ‘얹다’를 활용한 것이다. 03 조사 ‘도’와 ‘만’이 대명사 ‘너’의 뒤에 붙어 말의 뜻을 더해 주면서 두 문장의 의미에 차이가 생겼다. 04 제시된 문장에서 수식언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 ‘그’와, 뒤에 오는 형용사 ‘좋다’를 꾸며 주는 부사 ‘몹시’이다. 05 ‘둘’, ‘그것’, ‘버스’는 체언이고,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06 ‘그래’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쓰이는 감탄사이고, ‘싫어’는 쓰임에 따라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다. 07 정민은 그림말을 활용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수아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연결해서 보내 주었다. 08 누리집은 공적인 맥락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대화방은 사적인 맥락으로 주로 활용된다. 09 전교생에게 알릴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인 사용자의 사적인 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대화방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춘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와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1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없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01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를 의미한다.

평가 기준

- 상 품사의 정의와 분류 기준 세 가지를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중 품사의 분류 기준만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하 품사의 정의만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02 ‘얹아서’는 형용사 ‘얹다’의 활용형이다. ‘얹다’에서 활용이 되지 않는 어간은 ‘얹-’이며, ‘-아서’라는 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평가 기준

- 상 어간과 어미, 기본형을 밝히어 서술하였다.
- 중 어간과 어미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기본형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기본형은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어간과 어미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03 ‘우리가 너도 좋아해.’는 대명사 ‘너’의 뒤에 조사 ‘도’가 붙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에 더해 너까지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반면에 ‘우리가 너만 좋아해.’는 대명사 ‘너’의 뒤에 조사 ‘만’이 붙어 여러 사람 중에 오로지 너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사가 말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문장 사이에 의미 차이가 생겼다.

평가 기준

- 상 의미상 차이가 나는 까닭을 조사의 변화에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 중 의미상 차이가 나는 까닭을 조사 ‘도’와 ‘만’의 차이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 하 의미상 차이가 나는 까닭을 문장의 의미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04 주어진 문장에서 수식언은 ‘그’와 ‘몹시’이다. 수식언은 관형사와 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는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 ‘몹시’는 뒤에 오는 형용사 ‘좋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평가 기준

- 상 수식언 두 개의 품사와, 수식언이 꾸며 주는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수식언 두 개의 품사와 수식언이 꾸며 주는 단어의 품사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수식언과 수식언이 꾸며 주는 단어는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품사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5 ‘둘’은 아들의 수를 나타내는 수사, ‘그것’은 ‘여름’을 가리키는 대명사, ‘버스’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둘, 그것, 버스’ 모두 체언이며, 조사 ‘을/를’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 상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기능에 따라 바르게 분류하고, 문장 안에서의 역할도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기능에 따라 바르게 분류하였으나, 문장 안에서서의 역할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6 ‘그래’는 감탄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쓰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싫어’는 형용사 ‘싫다’의 활용형이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활용을 하며, 주체의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는 특성이 있다.

평가 기준

- 상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해당 품사의 특성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밑줄 친 단어 중 하나의 품사와 해당 품사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 하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해당 품사의 특성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07 정민은 하트를 들고 있는 다람쥐 그림말을 사용하여 지도를 공유해 준 수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수아는 혼자 돌아다니는 강아지의 위치를 정민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지도를 연결해서 보내 주었다.

평가 기준

- 상 정민과 수아의 전략을 바르게 파악하고 목적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정민과 수아 중 한 사람의 전략과 목적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정민과 수아 두 사람이 사용한 전략을 서술하였으나, 그 목적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8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공적인 맥락으로 주로 활용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대화방은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매체이므로 주로 사적인 맥락으로 활용된다.

평가 기준

- 상 온라인 대화방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누리집을 주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바르게 분류하였다.
- 중 세 개의 매체 중 두 개의 매체를 주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바르게 분류하였다.
- 하 세 개의 매체 중 하나의 매체를 주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바르게 분류하였다.

09 전교생에게 알릴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적인 정보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누리집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온라인 대화방은 익명의 다수와 소통이 가능하지만, 주로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교생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평가 기준

- 상 온라인 대화방과 누리집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어진 내용을 알리기에 누리집이 적절한 까닭을 서술하였다.
- 중 누리집의 특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내용을 알리기에 누리집이 적절한 까닭을 서술하였다.
- 하 주어진 내용을 알리기에 누리집이 적절함을 서술하였다.

10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온라인 대화방에 비해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므로 음식점의 후기를 작성하기에 적절하다.

평가 기준

- 상 활용할 수 있는 매체와 그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하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그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11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없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

- 상 상호 작용적 매체의 특성을 두 가지 이상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상호 작용적 매체의 특성을 하나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262~263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②
06 ① 07 ⑤ 08 ③ 09 ④

01 빈칸에는 뒤에 오는 형용사 ‘따뜻하다’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④에서는 총 3개의 부사 ‘분명히’, ‘아주’, ‘많이’가 사용되었다. ‘분명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아주’는 뒤에 오는 부사 ‘많이’를 꾸며 준다. ‘많이’는 형용사 ‘따뜻하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뒤에 오는 동사 ‘내렸다’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형용사 ‘아름다웠다’를 꾸며 주는 부사 ‘정말’이 쓰였다.
② 동사 ‘좋아한다’를 꾸며 주는 부사 ‘무척’이 쓰였다.
③ 동사 ‘좋아하니’를 꾸며 주는 부사 ‘가장’이 쓰였다.
⑤ 동사 ‘들자’를 꾸며 주는 부사 ‘번쩍’과, 동사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 ‘깜짝’이 쓰였다.

02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복하세요’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혹은 ‘행복하게 지내세요’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조용히’는 부사로 굳어진 경우로, 뒤에 오는 동사 ‘하자’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② ‘이다’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온갖’은 관형사이다. 뒤에 오는 형용사 ‘재미있게’를 꾸며 주려면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등의 부사가 와야 한다.
⑤ ‘보다’는 ‘~에 비해서’라는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므로 앞말인 ‘소연’에 붙여 써야 한다.

03 ‘좋은’은 형용사 ‘좋다’의 활용형이다.

오답 풀이 ② ‘크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③ ‘아니요’는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④ ‘한’은 뒤에 오는 명사 ‘아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⑤ ‘선생님’은 선생을 높여 부르는 말인 명사이다.

04 ① ‘둘째’는 조사 ‘도’와 결합하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① ‘둘째’는 ㉠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① ‘그’는 뒤에 오는 명사 ‘마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① ‘그’는 조사 ‘는’이 붙어서 쓰인 체언이며,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② ① ‘지금’은 동사 ‘출발하자’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① ‘지금’은 조사 ‘부터’가 붙어 쓰인 명사이다.
③ ① ‘어제’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① ‘어제’는 조사 ‘가’가 붙어서 쓰인 체언이며,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⑤ ① ‘이’는 뒤에 오는 명사 ‘사과’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① ‘이’는 조사 ‘는’과 붙어서 쓰인 체언이며,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05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열’은 수사이므로 체언이다. ① ‘어느’는 뒤에 오는 명사 ‘하나’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므로 수식언이다. ② ‘것’, ③ ‘어른’, ④ ‘셈’은 명사이므로 모두 체언이다. 따라서 수식언인 ①이 나머지와 품사가 다르다.

06 조사는 문장에서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말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기>에서 조사 ‘에’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① ‘만’은 여러 사람 중 오로지 ‘저희’만 왔다는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보기>와 역할이 다르다.

오답 풀이 ② ‘가’, ③ ‘게서’는 문법적인 관계(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④ ‘를’도 문법적인 관계(목적어)를 나타내며, ⑤ ‘에게’ 역시 문법적인 관계(부사어)를 나타낸다.

07 (가)에 따르면 댓글은 ‘등록순’으로 정렬된다. 먼저 등록한 댓글이 위에 보인다면 ‘정민, 민수, 선아’ 순으로 댓글이 보일 것이고, 나중에 등록한 댓글이 위에 보인다면 ‘선아, 민수, 정민’ 순으로 댓글이 보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수, 선아, 정민’ 순으로 댓글을 확인할 수는 없다.

08 (가)는 누리집,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누리집의 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릴 때에는 해시태그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댓글 기능은 (가)에도 있는 기능이다.
② (가)도 상호 작용적 매체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④ (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가)에서도 사진이나 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⑤ 공적인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나)가 아닌 (가)이므로, (가)의 내용을 (나)에 올리는 게시물로 바꾸어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09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불필요한 의류 소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뿐만 아니라 (나)도 가능하다.
② (가)와 (나) 모두 긴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도 가능하다.
⑤ 인터넷 검색창에 패스트 패션을 검색하여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가)이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01 문학과 갈등

소단원 한눈에 보기

268~271쪽

- 1 갈등 2 (1) O (2) X 3 내적 갈등 4 ④
5 ㉠-㉡-㉢-㉣-㉤-㉥ 6 (1) 죄책감 (2) 삼촌 (3) 외적
7 (1) X (2) X 8 (1) 공, 쌍안경 (2) 점순 (3) 내적
(4) 삼촌 9 ⑤ 10 수만 11 하늘 12 ③
13 (1) X (2) X

1 문학에서 한 인물의 마음속이나 인물과 인물,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

2 (1) 인물과 인물, 그 인물이 속한 사회, 자연환경, 그 인물이 처한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2) 탐관오리 변 사포와 암행어사 이몽룡 사이의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에 해당한다.

3 <보기>에서 수현이가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할 것인지, 집에서 책을 읽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수현이의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므로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4 문학 작품에서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며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또한 갈등의 통해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갈등이 고조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 갈등을 통해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5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 사러 갔다가 더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과 함께 쓴 후(㉡), 삼촌에게 훈계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다(㉢). 수만은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 한다고 생각해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문기를 협박한다.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고(㉣), 이로 인해 점순이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다(㉤). 자신 때문에 점순이 쫓겨나자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문기는 삼촌에게 잘못을 모두 고백한다(㉥).

6 (1) 문기는 고깃간 집에서 더 거슬러 받은 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사고,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
(2) 문기는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3)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 한다고 생각한 수만이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문기를 협박하면서 둘은 갈등한다. 이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므로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7 (1) 문기가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고 했지만, 수많은 문기가 그 돈을 혼자 쓰려 한다고 생각하고 문기의 말을 믿지 않았다.

(2) 남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문기가 불장 안에 놓아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이 해소되었지만, 이로 인해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8 (1) 문기와 수만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공과 쌍안경 등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며 즐거워했지만,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썼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2) 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 대신 불장 안에 놓아둔 숙모의 돈을 점순이 훔쳤다는 누명을 썼다.

(3) 문기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과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대립하는데, 이는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4)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실에서 깨어난 후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마음과 몸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9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수만과 함께 물건을 사고 군것질을 하는 문기의 행동으로 보아 잘못된 행동에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10 문기에게 숙모가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숙모를 시험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문기를 협박하는 모습에서 수만의 영악한 성격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알 수 있다.

11 '하늘'은 맑고 깨끗한 것으로 묘사되며 죄책감 때문에 킁킁하고 어두운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소재이다.

12 털송송이의 '이파라파나무나무'라는 말은 '이빨 아파 너무너무'라는 뜻인데 '너희들을 낚낚 맛있게 먹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한 마시멜롱과 털송송이 사이에 외적 갈등이 발생한다.

13 (1) 「하늘은 맑건만」은 문기가 숨겨둔 공과 쌍안경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 '현재'에서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과거'로 이야기가 거슬러 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 「이파라파나무나무」는 마시멜롱 마을에 털송송이가 '이파라파나무나무'라고 외치며 나타나자 마시멜롱들은 털송송이의 말을 '너희들을 낚낚 맛있게 먹겠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여 털송송이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털송송이가 한 말의 진짜 뜻이 '이빨 아파 너무너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털송송이와 마시멜롱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 1 거스름돈 2 ④ 3 역순행적 구성 4 ④
5 ⑤ 6 ③ 7 ⑤ 8 ④ 9 ①
10 ① 11 문기는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졌기 때문이다.
12 ⑤ 13 ④ 14 ⑤ 15 ② 16 ⑤
17 ② 18 ② 19 ② 20 ③ 21 ④

1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 한 근을 사러 갔다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게 되면서 문기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된다.

2 발단 ①에서 문기는 숨겨 둔 공과 책상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 둔 쌍안경이 없어지자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에게 들켰을까 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공과 쌍안경을 찾고 있다. 발단 ②에서 심부름을 하러 갔던 문기는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한다. 그러나 후련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3 발단 ①은 현재의 일이고, ①을 기점으로 발단 ②는 과거의 일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재 →과거'로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4 수만은 문기를 꼬여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함께 쓰자고 하였고, 둘은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을 함께 샀다. 이때 수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짐작할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5 수만이 말한 '좋은 일'이란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6 문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문기를 돌볼 처지가 아니어서 삼촌이 문기를 돌봐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삼촌이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문기의 아버지는 살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삼촌이 형님을 대신하여 문기를 돌봐 주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기가 가정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어머니는 어려서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기가 하겠니."라는 말에서 문기에 대한 삼촌의 믿음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삼촌이 문기에게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데 빠지지 말라는 훈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삼촌은 잘못된 행동에 엄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8 문기는 자신의 잘못이 들통났을까 봐 두려워 삼촌이 부르는 소리에도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고, 삼촌에게 꾸중을 들을까 봐 공과 쌍안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불안해한다. 이후 삼촌의 훈계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9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쓰고, 그 사실을 숨기려 공과 쌍

안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삼촌을 속인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10 양심의 가책을 느껴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지며 문기의 내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11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 후련하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평가 기준	확인 ☒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과 그 후의 심리를 바르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알맞게 썼다.	☐

12 문기는 수만에게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고 말하며 다시는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거스름돈을 쓴 일에 대해 고깃간 주인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자고 수만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13 수만이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문기와 수만이 갈등하고 있다.

14 수만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문기가 잘못된 일을 알리지는 않았다.

15 수만은 문기를 쫓아다니며 집요하고 비열하게 괴롭히면서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16 '두 번째 허물'은 문기가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장안에 놓아둔 숙모의 돈을 훔친 일을 말한다.

17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은 자신인데 점순이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더욱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였다. 이를 통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 문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하였다.

19 문기는 담임 선생님이 정직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뜨끔뜨끔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도둑이 제 발 저리다'이다.

오답 풀이 ①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③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고 이유를 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④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20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며 갈등이 해소된다.

21 ‘하늘’은 죄책감으로 인해 어둡고 무거운 문기의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자, 맑고 깨끗한 마음,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없는 마음 등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하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문기가 삼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후 뒤흔들어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는 대상이다.

활동 응용 문제

296~301쪽

- 1 ㉠ 2 ㉡ 3 ㉠ 4 ㉠ 5 (1) 애정, 훈계
(2) 도적질, 이익 6 ㉠ 7 ㉠ 8 ㉢ 9 정직
10 ㉠ 11 ㉡ 12 ㉠

1 문기는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고, 수만을 만나 거스름돈을 함께 쓰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후 ㉠-㉠-㉠-㉠ 순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2 문기는 남은 돈을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도적질을 했다고 소문내겠다는 수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장 안에 놓아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다.

3 수만은 작은어머니가 문기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기에게 잔돈만 작은어머니에게 쥐 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행동에서 수만의 영악하고 약삭빠른 성격이 드러난다.

4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산 공과 쌍안경에 대해 삼촌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삼촌의 꾸중과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래서 약속한 환등 틀을 사러 가자는 수만의 꼬임에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오답 풀이 ㉡ 잘못을 저지른 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양심을 회복하였다.

㉢ 문기는 남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다.

㉣ 죄책감에 시달리던 문기는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으로 담임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지만 결국 잘못을 자백하지 못하고 돌아온다.

㉤ 문기는 자신이 바르고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는 삼촌의 훈계를 듣고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삼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5 (1) 삼촌은 문기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며, 문기를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한다.

(2) 수만은 남은 돈을 주지 않으면 문기가 도적질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문기를 협박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6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된다.

7 문기는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장 안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8 문기는 자신이 잘못된 일들을 삼촌에게 모두 고백하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해짐을 느꼈다. 이로써 문기의 마음속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다.

9 문기는 잘못을 저지른 후 죄책감에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 작품의 제목인 ‘하늘은 맑건만’에는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10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써 버린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 하지만 고깃간 주인을 찾아가 직접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

11 문기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불장 안의 돈을 훔침으로써 내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기에게는 용기를 내서 잘못을 고백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절하다.

12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내적 갈등이 해소된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므로, 문기가 점점 깊어지는 죄책감으로 인해 좌절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활동 응용 문제

302~303쪽

- 1 ㉠: 이파라파나무나무 ㉡: 이빨 아파 너무너무. 2 ㉢
3 ㉤ 4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한다. /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충안을 마련한다. / 상대의 입장을 배려한다. 등

1 털송송이가 “이파라파나무나무”라고 외치는 말을 마시멜롱들이 “너희들을 낚낚 맛있게 먹겠다.”라는 뜻으로 오해한다. 이로 인해 마시멜롱들이 털송송이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마시멜롱과 털송송이가 갈등을 겪게 되고, 털송송이가 한 말의 진짜 뜻이 “이빨 아파 너무너무.”라는 것임을 알아내면서 갈등이 해소된다.

2 마시멜롱들이 털송송이의 겉모습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낚낚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여 털송송이를 공격하려고 어린 마시멜롱이 털송송이를 찾아가 털송송이의 말을 경청하여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겉모습이 달라도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3 공공장소에 소음을 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한다. /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충안을 마련한다. / 상대의 입장을 배려한다 등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서술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를 썼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소단원 마무리

304~305쪽

- 1 (1) O (2) O (3) X 2 ⑤ 3 ② 4 (1) O
(2) O (3) 5 ① 6 ⑤

- 1 (1) 소설은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되며 사건이 전개된다.
(2) 인물과 인물, 사회, 자연환경,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외적 갈등이다.
(3)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은 내적 갈등이고,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은 외적 갈등이다.

2 문학 작품에서 갈등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3 이 소설에 나타난 주된 외적 갈등은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주고 더는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문기와 그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 사이의 갈등이다.

4 (1)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쓴 일, 숙모의 돈을 훔친 일로 죄책감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2) 문기는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점순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더욱 커졌다.
(3) 문기가 숙모에게서 훔친 돈을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기와 수만 사이의 외적 갈등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이는 문기가 다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

5 수만은 더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남은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를 집요하게 괴롭힌다.

6 ‘하늘’은 양심을 의미하는 소재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문기의 심리 상태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양심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문기가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해력 키우기

307~309쪽

- 1단계 | 1 허물 2 착수하다 3 가뜩하다 4 동
5 느물거리다 6 갑절 7 주빚주빚하다 8 빈탕
9 여의다 10 축내다 11 남루하다 12 풍기다
13 성화 14 무춤하다 15 도리어

- 2단계 | 1 구실 2 모종 3 뱃심 4 지전
5 작정 6 책보 7 물리다 8 모퉁이
9 붓비다 10 얼리다 11 연하다 12 잡화상
13 아물아물 14 활동사진

- 3단계 | 1 고조되었다 2 공교롭게 3 당초
4 풀 5 죄책감 6 예 건호는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7 예 그는 마땅히 가고 싶은 데가 없어 일없이 거리를 배회하였다. 8 예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기어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9 예
엄마는 동생에게 학교 갈 준비를 미리 해 놓으라고 누누이 타일렀다. 10 예 우리는 학교가 파하고 곧장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영화관으로 갔다.

1단계 |

- 1 **오답 풀이** 뒤뜰: 큰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2 **오답 풀이** 파하다: 어떤 일을 마치거나 그만두다.
3 **오답 풀이** 근심스럽다: 보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데가 있다.
4 **오답 풀이** 어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5 **오답 풀이** 빈정대다: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린다.
6 **오답 풀이** 누누이: 여러 번 자꾸.
7 **오답 풀이** 소심하다: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8 **오답 풀이** 약과: 그만한 것이 다행임. 또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르는 말.
9 **오답 풀이** 저물넉: 날이 저물 무렵.
10 **오답 풀이** 주리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몹시 아쉬워하다.
11 **오답 풀이** 엄하다: 성격이나 행동이 철저하고 까다롭다.
12 **오답 풀이** 조지다: 일이나 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다.
13 **오답 풀이** 궁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14 **오답 풀이** 추근추근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검질기고 끈덕지다.

15 **오답 풀이** 필사: 아마도 틀림없이.

소단원 평가

310~315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⑤ 10 ③
11 ③ 12 ② 13 ③ 14 남은 돈을 고깃간
집 마당에 던졌다는 문기와 그 말을 믿지 않고 남은 돈을 내놓으라
며 문기를 괴롭히는 수만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15 ②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면서 갈등을 해결했는데,
이를 통해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주제가 나타난다.
21 ⑤ 22 ④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로,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이다.

오답 풀이 ①은 설명하는 글, ②는 수필, ③은 시, ⑤는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다.

02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가)의 안반 뒤에 숨겨 둔 공과 쌍안경이 보이지 않아 문기가 찾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일이고, (나)의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를 사러 간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다.

03 (가)에서 문기는 숨겨 둔 공과 쌍안경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고 있으며, (나)에서 문기는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04 문기는 고깃간 주인의 실수로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되고, 이 돈을 수만과 함께 쓰면서 문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

05 문기와 수만은 거스름돈으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만년필, 공, 쌍안경 등을 사며 재미를 느끼고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06 문기와 수만은 거스름돈으로 공,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 등을 사고, 활동사진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군것질도 하였다. 그리고 환등 기계 한 틀을 사서 용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07 손이 맞았다는 것은 둘의 생각이 일치하였다는 것으로 문기와 수만이 마음이 맞아 함께 돈을 쓰기로 한 것이다.

08 ‘으스스한 골목’은 수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문기의 심리가 반영된 공간이다.

09 삼촌은 공과 쌍안경을 수만이 줬다는 문기의 말을 그대로 믿어 주고 있다. 그리고 문기의 장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기를 어디까지든지 공부시키려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훈계하고 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구, 내 모양은 뭐냐?”라는 말은 문기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삼촌의 노력이 무엇이 되느냐는 의미일 뿐, 삼촌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로 보기 어렵다.

10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듣고 나서, 써서는 안 될 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산 일과 삼촌을 속인 일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11 (다)와 (라)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문기는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후 죄책감에서 벗어나 후련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수만은 고깃집 집 안마당에 나머지 돈을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문기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지을 뿐 문기가 수만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훈계하고 있지는 않다.

13 수만은 문기를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리고 있는데,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이고, 달음박질을 하다가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으며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오답 풀이 다. 수만은 판장과 빈지판, 교실 칠판에 문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쓰지 않고 “김문기는 ○○○했다.”라고 써서 문기를 헐박하고 있다.

라. 수만은 교실 칠판에 “김문기는 ○○○했다.”라고만 썼을 뿐, 문기에 대한 일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다.

14 문기는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고 말하지만, 수만은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헐박하며 문기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기와 수만이 갈등의 주체이며, 그 갈등이 외적 갈등임을 서술하였다.	☐
문기가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고 말하고, 수만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15 문기는 자신의 잘못이 들뜰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앞이 캄캄했던 것이다.

16 (라)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양심을 회복하고 있으므로, 문기가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17 ‘두 번째 허물’은 문기가 수만의 헐박에 못 이겨 불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친 일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문기와 수만이 더 돈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18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값으면 고만이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19 ①와 ⑥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문기의 마음을 가리키고, ③, ④, ⑤는 문기가 회복하고 싶은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20 문기는 삼촌에게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고백한 후 후련함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가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
문기가 잘못을 고백하면서 갈등을 해결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이 글의 주제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21 마시멜롱들의 말에서 그동안 털송송이가 자신들을 괴롭혀 왔다고 생각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2 마시멜롱이 털송송이의 '이파라파나무나무'라는 말의 의미를 자신들을 낚아 먹겠다는 말로 오해하며 마시멜롱과 털송송이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어린 마시멜롱은 정말 털송송이가 자신들을 먹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아봐야겠다고 털송송이를 찾아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한다.

02 토의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318~321쪽

1 (1) O (2) O (3) X 2 ③ 3 ③ 4 (1) X (2) O
 5 ⑤ 6 ⑤ 7 토의자, 의견 8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9 ⑤ 10 ⑤ 11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
 12 (1) 자리 배치 (2) 일정 시간 13 ②

1 (1) 토의는 일반적으로 '토의 주제 정하기 → 토의 준비하기 → 토의하기 → 토의 내용 정리하기'의 절차로 진행된다.
 (2)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토의의 주제는 집단 구성원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문제여야 한다.
 (3) 토의 주제에 대하여 토의자 간에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토의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2 <보기>는 패널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패널 토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3~6명의 패널(토의자)들이 토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토의이다.

3 패널 토의는 '① 토의 주제와 토의자 소개 → ② 토의자의 제안 → ③ 토의자 간 의견 교환 → ④ 청중과의 질의응답 → ⑤ 토의 마무리'의 단계로 진행된다.

4 (1)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청중은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토의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토의자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5 토의 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의자의 역할이다.

6 토의자가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상대방에게 바로 물으면 토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발언을 끊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의 발언이 끝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7 패널 토의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 소개, 토의자의 제안과 토의자 간 의견 교환, 청중과의 질의응답, 토의 마무리 순서로 진행된다.

8 민준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9 지아는 추첨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추첨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누구와 앉게 될지 기대하고 긴장감도 느끼면서 즐겁게 자리를 바꿀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토의자 간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공감하거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11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는 서연의 제안에 은서가 같은 반에 서로 성향이 비슷하거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없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12 (1)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 교정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맨 뒤에 앉게 되는 경우에 대한 유찬의 질문에, 지아는 고려해야 할 점을 미리 조사하여 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은우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의한 결과,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리를 추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첨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내용 확인 문제

326~334쪽

- 1 ③ 2 교실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 3 ②
4 ⑤ 5 추천으로 정하자. 6 ③ 7 ⑤
8 서연 9 ① 10 ③ 11 ③ 12 ③
13 자리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천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를 것이다. 14 ⑤
15 ②

1 민준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 불편했던 점(학급 공동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하기로 하였다.

2 민준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여 교실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3 민준(사회자)의 말에 따르면, 토의자로 서연, 은우, 지아가 선정되었으며, 이 세 명의 토의자가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자 간 의견을 나눈 뒤에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는 순서로 토의를 진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앞자리나 뒷자리를 선택하여 앉을 수 있으며, 일찍 오는 노력에 따라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모든 학생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5 지아는 ‘추천으로 정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추천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어디에 앉게 될지, 누구와 앉게 될지 알 수 없어 기대도 하고 긴장감도 느끼면서 즐겁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6 사회자는 세 명의 토의자인 서연, 은우, 지아의 제안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 사회자는 이외에도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모두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관련 있는 사회자의 역할은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7 ① ‘선착순으로 정하자’는 은우의 제안에 대해 지아는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8 ‘선착순으로 정하자.’는 은우의 제안에 대해 서연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매일 멀리서 등교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더 일찍 나와야 합니까? 멀리서 사는 게 무슨 죄인가요?”라며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9 ① ‘추천으로 정하자.’는 지아의 제안에 대해 은우는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생각인가요?”라고 질문하고 있다.

10 ①에서 사회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서에 따라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에서 사회자가 토의 내용을 요약(⑥)하거나 토의자 간의 갈등을 조정(⑦)하고 있지는 않다.

11 민준(사회자)은 “이제부터 세 분의 토의자가 제시한 의견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청중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뿐, 청중의 발언 순서를 미리 정해 주고 있지는 않다. 민준(사회자)은 토의하기 단계의 시작 부분에서 토의자에게 차례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12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중은 토의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짚어 주거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의자들의 제안에 의견을 제시하여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토의자들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 ‘토의 마무리’에서 사회자는 자리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천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하였다.

14 ⑤에서는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의 토의 결과 추천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답 풀이 ①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토의 마무리’ 전에 진행된다.

② ‘토의자 간 의견 교환’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토의 내용을 정리하며 토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③, ④ 오늘 토의를 통해 추천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이 되었고, 다음 시간에 자리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천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15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토의 과정에서 토의 주제에 맞게 의견이 잘 정리되었는지, 토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의 참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청중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모든 토의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②는 토의 후 토의 과정을 점검할 때의 내용이 아니라, 토의 전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활동 응용 문제

335~339쪽

- 1 ④ 2 ① 3 ④ 4 ③ 5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④ 7 ⑤ 8 ① 9 ⑤

1 토의록은 토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토의록에는 토의 날짜, 사회자, 토의자, 토의 주제, 토

의에서 제안된 의견, 토의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토의의 장점 등은 토의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2 이 토의록에서 알 수 있는 토의 참여자는 사회자 민준과 토의자 서연, 은우, 지아로, 총 4명이다.

3 주어진 발언은 자신의 의견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한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의의 분위기를 바르게 조성하고,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4 사회자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목적은 토의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5 서연은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토의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 올바른 토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하고, 토의에서 마련한 해결 방안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서연의 구체적인 태도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

6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7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토의 준비하기’ 단계가 아닌 ‘토의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토의 유형과 토의에서 말을 역할을 정하고, 토의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며,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8 ‘토의를 원활하게 이끌었는가?’는 토의자가 아닌 사회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9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토의는 공적인 사안이나 토의 주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토의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토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활동 응용 문제
340~341쪽

1 ④ **2** ④ **3** ②

1 이 토의의 유형은 피라미드 토의로, 피라미드 토의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토의를 시작하여 모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의 유형이다.

2 피라미드 토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생존 가방과 관련한 모둠 토의를 진행할 때 창의적인 의견보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소단원 마무리
342~343쪽

1 (1) O (2) X (3) X **2** ⑤ **3** ④ **4** ㉠ → ㉡
→ ㉢ → ㉣ **5** ③ **6** (1) X (2) O (3) X

1 (1)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말하기이다.

(2) 토의의 주제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동의 문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토의는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는 말하기는 토의가 아닌 토론이다.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의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3 토의는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제한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토의는 ‘㉠ 토의 주제 정하기 → ㉡ 토의 준비하기 → ㉢ 토의하기 → ㉣ 토의 내용 정리하기’ 절차로 이루어진다.

5 민준과 친구들의 토의에서 사회자는 민준이 맡았고, 서연, 은우, 지아는 토의자로 참여하였다. 이 토의에서 선생님이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6 (1) 서연은 요즘 수업 시간에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데,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으면 활동 과정과 결과가 좋고,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노력에 따라 성취감도 느끼고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지아는 어떠한 기준이든 자리를 정하고 나면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천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추천은 기대도 하고 긴장감도 느끼며 즐겁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문해력 키우기

345~347쪽

1단계 | 1 타당하다 2 미처 3 원활하다 4 거
듭하다 5 수월하다 6 유발하다 7 공평
8 집중하다 9 합의하다 10 번거롭다 11 안정
감 12 절충안 13 선호하다 14 경제성
15 유지하다

2단계 | 1 대안 2 방안 3 유형 4 존중
5 청중 6 토의 7 특정 8 패널 9 협력
10 비속어 11 선착순 12 유도하다 13 제시
하다 14 질의응답

3단계 | 1 절차 2 최선 3 고르게 4 발언
5 시행착오 6 예 그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성향이 강하다.
7 예 그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표현했다. 8 예 학생들은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이해해
야 한다. 9 예 그는 회의 중 감정을 자제하며 의견을 제시했
다. 10 예 그녀는 수업 방식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했다.

1단계

- 1 **오답 풀이** 명확하다: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다.
- 2 **오답 풀이**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에는.
- 3 **오답 풀이** 수용하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 4 **오답 풀이** 가능하다: 사물을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
- 5 **오답 풀이** 적절하다: 꼭 알맞다.
- 6 **오답 풀이** 자제하다: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다.
- 7 **오답 풀이** 지작: 허물 등을 드러내어 폭로함.
- 8 **오답 풀이** 조정하다: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다.
- 9 **오답 풀이** 소통: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 10 **오답 풀이** 손쉽다: 어떤 것을 다루거나 어떤 일을 하기가 훨씬 쉽다.
- 11 **오답 풀이** 성취감: 목적인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
- 12 **오답 풀이** 타협점: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의할 수 있
는 점.
- 13 **오답 풀이** 마련하다: 헤아려서 갖추다.
- 14 **오답 풀이** 효율성: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특성.
- 15 **오답 풀이** 제안하다: 안이나 의견을 내놓다.

소단원 평가

348~351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③ 05 ②
06 ① 07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08 ①
09 ④ 10 ② 11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만 앉
아야 하고,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는 문
제가 있다. 12 ② 13 ④ 14 ① 15 자
리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자. 왜냐하면 추점으로 정한 자리가 마음
에 들지 않는 친구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 이 글에서 민준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번호 순서대로 자리에
앉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
다. 이와 같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싶을 때 토의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⑤ 토의가 아닌 토론에서 주장과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02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서로의 의
견을 주고받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
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오답 풀이 ④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는
토론에 관한 설명이다.

03 토의 유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묻는 민준의 질
문에 은우는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
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고, 패널이 아닌 친구들도 청중이
되어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패널 토의’를
제안하고 있다. 패널 토의는 토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3~6명의 패널(토의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토의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다.
③ 패널 토의가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원탁 토의보다 패널 토의가 다
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토의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원
탁 토의이다.

04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한 반의 사례를 근거로 들지 않
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나)에서는 서연이 친한 친구끼리 모듬을 이루어 앉는 방법
을, (다)에서는 은우가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라)에
서는 지아가 추첨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는 토
의의 절차 중 ‘토의자의 의견 제안하기’ 단계이다.

06 “한 학기 동안 번호 순서대로 앉으면서 불편을 겪은 친구들이 있으니”라는 부분에서 토의가 필요한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토의자로 선정된 분은 서연, 은우, 지아 학생입니다.”, “그럼 서연, 은우, 지아 학생의 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에서 토의자의 이름과 발표 순서를 알 수 있다. “먼저 세 분의 토의자가 ~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에서 토의의 진행 순서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토의 참여자의 의견과 근거는 (나)~(라)에서 토의자의 발언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07 이 글에서 민준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의문문 형태로 표현하였고,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8 (나)에서 서연은 가까운 친구와 앉았을 때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09 (가)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자가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토의자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안내한 후 먼저 서연의 제안에 질문할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해야 할 사회자의 역할이다.
 ②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해야 할 청중의 역할이다.
 ③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토의자는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토의자들 간의 갈등과 의견 충돌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10 (다)에서 서연은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1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은우의 제안에 대해 서연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학생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아는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두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토의자들이 제시한 두 가지 문제점이 모두 포함되도록 요약하고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2 (가)의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면 이 방법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서연의 말을 통해 서연은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이 제안한 의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회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은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몇몇 자리를 일찍 오는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하운의 의견에 같은 자리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앉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⑤ 매일 다른 자리에 앉게 하거나 고정적으로 같은 자리에 앉으면 별금을 물리는 것이 아닌, 같은 자리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앉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②, ③ 인기가 많은 자리를 추첨으로 앉게 하거나 특정 학생들만 일찍 오지 않게 조정하는 것은 은우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14 (다)에서 유찬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면 모두에게 공평할 것 같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추첨으로 정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연은 추첨 방법의 목적이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찬과 서연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5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지아의 의견에 대해 서연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리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하자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근거를 서술하였다.	☐
내용을 제시된 형태에 맞게 서술하였다.	☐

대단원 평가

356~365쪽

- 01** ② **02** ① **03** ② **04** ‘으스스한 골목’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었으나, ‘밝은 큰 행길’에서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 있어 기쁜 마음이었다.
- 05** ③ **06** ⑤ **07** ⑤ **08**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09** ④ **10** ② **11** ④
- 12** ② **13** ② **14** ④ **15** ③ **16** ④
- 17** ⑤ **18** ② **19** ⑤ **20** ② **21** ①
- 22** ④ **23** 삼촌에게 잘못을 모두 고백한 문기는 하늘을 뚫듯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24** ⑤ **25** ⑤
- 26** ③ **27** ㉠에서 토의자는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28** ①
- 29** ② **30** 서연의 태도는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31** ② **32** ⑤ **33** ⑤
- 34** ④ **35** 토의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발견해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36** ① **37** ② **38** ⑤

01 이 글에는 더 받은 거스름돈을 함께 쓰자는 수만의 제안에 문기는 그 돈을 쓸지 말지 망설이며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기의 내적 갈등을 통해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02 문기는 고깃간 주인에게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수만과 함께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해 보고 싶었던 것을 하였다.

오답 풀이 ②, ⑤ (다)에서 문기는 수만이 이르는 대로 잔돈만 꺼내 놓고, 숙모가 그 돈을 받아 자세히 세어 보고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숙모가 문기에게 심부름 값으로 일 원을 주었고, 고깃간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문기는 수만에게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상황을 말하였을 뿐, 수만에게 그 거스름돈을 함께 쓰자고 먼저 꼬드긴 것은 아니다.

④ 문기는 더 받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사고, 해 보고 싶은 것을 하였다.

03 (라)에서 수만은 문기를 꼬드쳐 문기가 더 받은 거스름돈을 함께 쓸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대담하고 영악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4 더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과 함께 쓰기로 한 문기는 '으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써서는 안 될 돈을 쓰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지만, '밝은 행길'로 나오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과,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 있어 기쁜 마음을 대조하여 서술하였다.	☐
'으스한 골목'과 '밝은 행길' 두 장소에서의 대조된 문기의 심리를 서술하였다.	☐

05 (나)에서 문기는 삼촌을 속이고 써서는 안 될 돈을 써 버린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삼촌과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06 '자기는 수만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 '제 허물을 남에게 밀려는 알미운 구실'로 보아, '제 허물'은 문기가 더 받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일을 말한다.

07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문기가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짐으로써 무거운 짐을 풀어 놓은 듯 죄책감에서 벗어나 후련함을 느끼고 있다.

08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난 후 문기는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을 담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9 수만은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나머지 돈을 혼자만 쓰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0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의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상을 짓는 문기의 모습에서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기에게 남은 돈을 받아 내려고 문기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협박하는 수만의 모습에서 집요하고 비열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1 수만은 문기 혼자 돈을 쓰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의 먹살을 잡는다. 이는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던 문기의 내적 갈등이 다시 심화된다.

12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치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한 후,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값으면 고만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점순이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점순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괴로워한다.

13 (라)에서는 자신이 훔친 돈 때문에 점순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②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14 ㉔은 문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부분으로, 소심한 성격의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15 (가)~(라)는 이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 해당하며, '절정'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16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 같아 괴로워하던 문기는 담임 선생님에게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다.

17 ㉑~㉔에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기의 심리가 드러난다. ㉔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서술하는 부분일 뿐, 문기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18 '하늘'은 죄책감 때문에 어둡고 무거운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어 맑고 푸른 마음, 즉 문기가 회복하고 싶어 하는 양심을 의미한다.

19 문기는 담임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려 했지만, 선생님이 의외로 웃는 낯으로 대하고,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었으며,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손님이 왔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

20 제목 '하늘은 맑건만'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뒤흔들 수 없는 문기의 상황과 대조하여,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 (가)에서 문기는 답임 선생님께서 잘못을 털어놓지 못하면서 죄책감이 더욱 커져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기와 숙모, 삼촌, 점순 사이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22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한 후에 마음속의 어둠이 차차 사라지며 양심을 회복하였다. 그렇다고 문기가 더 이상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23 문기는 삼촌에게 잘못을 모두 고백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늘을 뚫듯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갈등이 해소된 부분을 찾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기의 행동을 포함하여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4 (가)에서 은우는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패널 토의’를 토의 유형으로 선택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패널이 아닌 친구들은 청중이 되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② 토의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원탁 토의의 특징이다.

③ 토의의 준비와 진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패널이 아닌 친구들은 청중이 되어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25 (가)에서 민준이 사회자 역할을 맡기로 하고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알아본다고 하였으며(㉔), 서연, 은우, 지아는 패널이 되어 토의에서 제시할 의견과 근거를 마련해 오자고 하였다(㉕).

오답 풀이 ㉔ 토의 참여자는 ‘사회자(민준), 토의자(은우, 지아, 서연), 청중(반 친구들)’이므로 3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토의에 참여하게 된다.

㉕ (가)의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토의 유형은 ‘패널 토의’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 (라)에서 지아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즐겁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추천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은우가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다.

27 지아는 ㉑에서 다른 토의자인 서연과 은우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㉑에서 토의에 참여하는 올바른 토의자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

28 이 토의의 유형은 패널 토의로,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토의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청중이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때 주로 활용하는 토의 유형은 심포지엄이다.

③ 의견 대립을 전제로 하여 상호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토의가 아닌 토론에 해당한다.

⑤ 패널 토의는 ‘사회자, 토의자, 청중’으로 구성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유형은 원탁 토의이다.

29 (가)에서 사회자가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나)와 (다)의 첫 번째 발언에서 사회자가 토의 방식과 절차에 맞게 토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서연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자 사회자인 민준이 이를 제지하며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오답 풀이 ㉔ 다른 토의자와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토의자의 역할이다.

30 ㉑은 서연의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이는 토의 참여자의 태도로 바르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
서연의 말하기 태도를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한 근거를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1 (나)에서 유찬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면 모두에게 공평한 것 같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라며 지아 의견의 장점을 먼저 말하였고, 지아의 제안대로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 발생 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고 있다.

32 (가)의 ‘은서’, ‘하윤’, (나)의 ‘유찬’은 청중으로서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가)~(다)는 청중과 토의자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다. 이 때 청중인 은서가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게 되면 같이 앉고 싶은 친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고 제안한 서연은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긴다면 이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㉕은 의견을 보완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34 은우는 선착순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지아와 서연이 제시한 절충안을 반영하면 추첨이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의견을 바꾸고 있다.

35 서연은 청중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청중의 질문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서연이 ㉑처럼 판단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필요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36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회자가 “오늘 토의를 통해 주점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라고 하였다.

37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의 장단점을 판단해야 하며(㉠), 토의자는 의견을 정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오답 풀이 ㉠ 상호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 자신의 의견을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38 토의의 목적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은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토의의 목적과 맞지 않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366-367쪽

1 수만은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문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2 문기는 불량 안에 놓아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수만과의 외적 갈등을 해소했지만, 이후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3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힌 수만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다. 4 토의 절차로 보아 이 토의의 유형은 패널 토의이다.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하는 것이므로 학급 친구들이 패널 또는 청중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5 서연은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했다. 짝이나 모둠 활동의 과정이 수월하고, 결과물도 훨씬 좋았던 경험이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가까운 사이라면 쉽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토의 결과 추천의 방법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추천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1 (가)에서 수만은 고깃간 집 안마당에 남은 돈을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있으며, (나)에서 수만은 남은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가)~(나)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을 문기에 대한 수만의 생각과, 수만의 행동에 드러난 의도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가)~(나)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을 문기에 대한 수만의 생각과, 수만의 행동에 드러난 의도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조건>에 관계없이 문기와 수만의 갈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2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었는데, 이는 수만과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기의 행동이다. 이 행동으로 인해 문기의 죄책감은 심화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괴로워한다.

평가 기준

- 상 (다)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문기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다)를 참고하여 <조건> 중 두 가지만 충족하여 문기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서술하였다.
- 하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조건>과 관계없이 문기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서술하였다.

3 숙모에게 훔친 돈을 수만의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던져 주는 문기의 행동에서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힌 수만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조건>에 맞게 문기의 행동에 담겨 있는 수만에게 대한 문기의 심리 상태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 문기의 행동에 담겨 있는 심리 상태를 서술하였다.
- 하 <조건>에 관계없이 문기의 행동에 담긴 심리 상태를 서술하였다.

4 토의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교환한 뒤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는 점으로 보아, 이 토의의 유형은 패널 토의라고 할 수 있다.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고, 패널이 아닌 사람들은 청중이 되어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조건>에 맞게 토의의 유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라는 점에 근거하여 토의 유형을 정할 때 고려했을 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토의 유형을 제시하고, 토의 유형을 정할 때 고려한 점을 서술하였다.
- 하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조건>과 관계없이 토의 유형을 정할 때 고려했을 점을 서술하였다.

5 서연은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는 요즘 수업 시간에 짝이나 모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친한 친구끼리 앉으면 활동하는 과정이 수월하고, 활동의 결과물도 훨씬 좋았던 경험을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사이라면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평가 기준

- 상 서연이 토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근거를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서연이 토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근거 중 하나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서연이 토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근거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6 청중인 유찬은 추첨이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이라고 하였고, 토의자인 서연도 추첨의 방식이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은우도 추첨이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토의 결과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인 추첨의 방식으로 자리를 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토의에서 결정된 자리 바꾸는 방법과 그 까닭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토의에서 결정된 자리 바꾸는 방법과 그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토의에서 결정된 자리 바꾸는 방법과 까닭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368~369쪽

1 ③ 2 ④ 3 ② 4 ⑤ 5 ⑤

1 ㉞은 “난 인제 돈 가진 것 없다.”라는 문기의 말을 수만이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이후 일어나는 문기와 수만 사이에 생기는 외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2 문기가 수만에게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수만으로 인해 문기와 수만 사이에 외적 갈등이 일어난다.

3 이 글의 (라)는 ‘토의 주제 정하기’이며, (가)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 소개’, (나)는 ‘토의자의 제안’, (다)는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마)는 ‘토의 마무리’이다.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패널 토의에서는 (다)와 (마) 사이에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서가 있다.

4 ㉠은 토의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이해를 돕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 과정이다. 즉 토의자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토론의 목적이다.
- ②, ④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토의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 ③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토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은 토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토의의 주된 목표는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5 ⑤는 토의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해 다른 토의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의의 목적은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른 토의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